



[뉴스]
화웨이 5G장비 도입
LG유플러스
보안 강화에 총력전
02



Economy

Market data table with columns for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and their respective values and changes.

“이윤추구보다 사회적 지지”
재계 3세, 달라진 경영목표

삼성 미래인재 육성 강화
SK 사회적 가치 전도사
LG 고객 만족이 최우선



LG 구광모 대표는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공식 행사에 개주말 복장을 즐겨입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LG 테크데이에서 대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구 대표.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 이블링 피플’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임원진 평의의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새 비전을 ‘인재제일’과 ‘상생주구’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나간다는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LG도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 고객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구 회장이 올 초 신년사에서 고객에 감동을 줘야 한다고 주문한 후 계열사들도 잇따라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걸었다. 앞서 SK는 일찌감치 사회적 가치를 주요 경영 이념으로 내걸고 2017년에는 정관까지 바꾼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올 들어서 청와대 방문행사와 다보스포럼에서까지 사회적 가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이다. 재계에선 주요 그룹들이 이윤추구보다는 사회 공헌에 주력하는 데 대해, 기업 환경이 이전과

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에 대한 오너의 영향력 축소다. 3~4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가, 규제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지분율이 크게 희석됨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견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각각 3.68%, 0.62%에 불과하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특수관계인 지분도 20% 안팎이다.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지분으로 알려졌다. 지주사인 삼성물산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17.08%, 특수관계인을 다 합쳐도 32.98%다.

LG도 구광모 회장의 지분은 15%, 특수관계인까지 보면 40% 안팎이다. LG전자는 LG 지분이 33.67%다. SK 역시 최태원 회장 지분율은 18.29%, 특수관계인들을 합쳐도 30% 수준에 머물러있다. 지분율로 경영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은 대외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어진다. 행동주의펀드 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도 경영권에 개입키로 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 기업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생존 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졌다. 마케팅 전략 변화도 재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전언이다. 소비자들이 기업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제품 홍보보다는 사회적 역할 실현에 중점을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성능보다는 이미지를 앞세우는 애플과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 기업간 격차가 줄어들면서 생존 전략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낙수효과’에 대한 불신도 팽배해졌다. 마케팅 전략 변화도 재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전언이다. 소비자들이 기업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제품 홍보보다는 사회적 역할 실현에 중점을 옮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 성능보다는 이미지를 앞세우는 애플과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대수수료·세액공제 확대효과를 반영한 실질 경감 효과〉

Table showing the impact of card fee changes and tax benefits on actual relief effects, categorized by group and card type.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금융위원회

가맹점 93%, 수수료 우대
연간 8000억원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혜택이 집중된 곳은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다. 반면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가 올랐다고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그간 마케팅 혜택이 많았던 만큼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과의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할 결과 약 80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되는 효과를 봤다고 19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더 줄어든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실질수수료는 개편 전 1.05~1.55%에서 0.1~0.4%로 낮아진다.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도 연간 21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냈다.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 포인트, 100억~500억원은 평균 0.2%포인트의 인하됐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1.94%, 백화점 2.01%, 통신업종 1.80%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하면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기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보드 게임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文 대통령, 노원 월계문화복지센터서 포용국가 대국민보고

“2022년까지 모든국민이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

3대 비전-9대 전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제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 틀은 ▲사회통합의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 혁신능력 배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2년엔 모든 연령이 기본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생활은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

서 정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뜻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 제도가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 영위가 골자인 반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 존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 우승준 기자 dn1114@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서 연간 5700억원,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서 2100억원이 줄었다. <관련기사 3면>

현 및 카드수수료 역전성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담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달 중 카드사에 문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안상미 기자 smahn1@

화웨이 5G장비 도입한 LG U+, 보안 강화에 총력전

美·中 장비싸움에 영국도 가세 “스파이 행위엔 회사 문 닫을 것” 화웨이CEO, 美 공세 정면대응

LG U+, 이달 기지국 1.2만개 구축 보안관련 70개 가이드라인 검증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내 중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아래에서 한 여성이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5G) 이동통신을 둘러싼 미·중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5G 선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도 깊어졌다. 특히 이달 5G 통신망 상용화를 앞두고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화웨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간) 방영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직 세계의 일부만 대표할 뿐”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고 미국의 공세에 정면대응했다.

영국 정보기관이 최근 화웨이 5G 장비 안보 위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낸 직후다. 런정페이 CEO가 해외 언론과 이러한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소속이다. 영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이 사그라들 수 있다.

미국이 문제로 삼은 것은 화웨이의 보안이다. 2012년 화웨이 장비가 정보 유출을 하는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안 이슈가 불거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멩완저우를 미국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런정페이 CEO는 “화웨이는 어떤 스파이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행위를 하면 회사 문을 닫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한국은 이러한 미·중 5G 패권 경쟁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자칫 중간에서 애매하게 입장을 밝혔을 경우 무역 보복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장비 보안 이슈로 시작된 미·중 견제는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경제 이슈로 넘어갔다. 이것이 업계의 전반적 평가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미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보안 이슈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향후 5G 지도는 외교적·경제적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양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서 벗어난듯한 유럽의 독자노선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화웨이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5G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5G의 경우 초기에는 LTE망을 함께 쓰는 NSA(4G·5G 복합 운영 체제) 방식으로 구축된다. 이미 LTE 도입 당시 화웨이 장비를 들여온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빠른 망 구축을 위해 같은 회사 제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이동통신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전국에 1만2000개 이상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 등으로 불거질 수 있어 부담될 수밖에 없다. 보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터넷진흥원(KISA)과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은 받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보안 관련, 70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CEO 주관 전사 네트워크 품질·보안 점검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를 식별·관리하는 것은 유선 코어망에서 이뤄지는데 코어망 장비는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또한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5G 무선 기지국 장비에서 백도어를 통한 가입자 정보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은 자국의 5G 영향력을 화웨이 등의 회사를 앞세워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견제 또한 심해져 새로운 미·중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내에서는 당분간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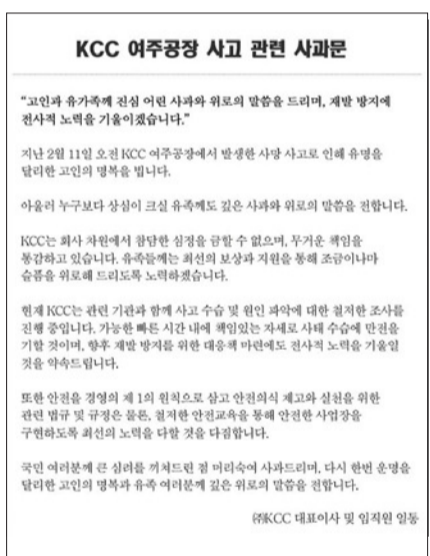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장비 사용이 논란이 되긴 하겠지만 막상 5G 상용화가 되면 큰 이슈는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KCC “고인·유가족께 사과… 재발방지 최선”

여주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사과

노조 “사측의 부실한 조치가 원인”



KCC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KCC는 19일 여주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KCC는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차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유족들께는 최선의 보상과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슬픔을 위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CC는 또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CC 여주공장에서는 가로 3.6m, 세로 2.7m 크기의 대형 유리판이 쓰러지는 사고가 나 홀로 마무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6) 씨가 깔려 숨졌다.

이에 KCC 여주공장 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KCC 여주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한 공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연이은 죽음을 맞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또 “연이은 사고는 인력 충원 없는 기형적 교대제로 인한 잦은 보직 변경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사측의 부실한 조치가 원인”이라며 “지난해 사고 이후 후속 조치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형식적 조치에 그친 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bada@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5G 시작도 안했는데...

시민단체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압박

민생경제연구 등 토론회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는 ‘월 2만원’ 1개 요금제 의무화 불과”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통신요금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관련 인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도입으로 전송속도·전송량·콘텐츠 등에 있어 소비자의 편리함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감당해야 할 통신요금과 가계 통신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안 소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나서 일부 5G요금제를 낮게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일각에서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동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5G 통신 투자 확대와 매출 하락에 직면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투자비는 최대 28조원으로 예상된다. 전폭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SK텔레

콤 3만1334원 ▲KT 3만1608원 ▲LG유플러스 3만1119원으로, KT와 SKT는 5분기 연속, LG유플러스는 6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는 선택약정할인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장은 “안 소장이 여지가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소회했고,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아직까지는 통신사에서 요금인가, 신고가 들어온 게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남 과장은 또 “과기부가 가계통신비와 관련 법적으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요금제가 어렵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알뜰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요금이나 단말 가격 인하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文 “포용국가, 국회의 입법·예산 필요”

>> 1면 ‘文 대통령...’서 계속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연매출 500억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상... 깊어지는 갈등

가맹점 “대책없이 책임 떠넘겨” 반발
카드사 “당국 개편방침 반영했을 뿐”

신용카드사가 다음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 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 포인트 인상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대형 가맹점의 반발이 거세다.

19일 대형마트·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카드사가 그 책임을 대형 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간 매출이 9조~10조원에 달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0.3%포인트 인상할 경우 카드 수수료로만 연간 270억~300억원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나 오프라인 판매 경로가 쇠퇴함에 따라 대형마트 업계의 분위기가 좋지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액 추정>

대형마트	270억~300억원
통신사	약 800억원

*통신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자료=라사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상생 측면에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

공인 등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시작한 것인데 그로 인한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돌리는 꼴”이라며 “대형 가맹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게 과연 진정한 상생의 결과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사 역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회사의 수수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상을 적용했을 때 SK텔레콤·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를 합친 카드 수수료 비용이 추가적으로 연간 800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카드사에 전기, 가스 등 사회기반서비스에 적용되는 특수가맹점의 수수료를 건의했으나, 카드사들이 일반 대형 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며 “대형 통신사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

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에 비해 결제 비용 원가가 낮은데도 카드사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통신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이라는 항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에 각 가맹점별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가맹점이 부과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에게는 우대수수료율 1.6%를 적용하고, 50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게는 평균 1.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조

정해 수수료를 적절히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즉,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동안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분배되던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별로 세분화해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함으로써 일반, 대형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했다는 것.

한 카드사 관계자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렸다고 보는 것은 틀린 것”이라며 “당연히 일반 가게보다 대형마트에서 추가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마케팅 혜택을 받는 측면이 더 많아 적격비용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한 것이며, 오히려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적격비용 이하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산출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금융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한 것”

일문일답

전체 가맹점 96% 수수료 인하 혜택
인상부분,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과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뉴스1

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 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의 일문일답.

-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은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

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다.

“TF를 개편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수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8개 카드사, 내달부터 인상 통보
비용 절감 위해 고객 혜택 줄여
부가서비스 단축 방안 마련 방침

카드사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통신사,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나서면서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비자 피해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는 통신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2%에서 2.1~2.3%로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수료 인하, 대형가맹점 불똥... 결국 소비자 피해

수수료 부담이 커진 대형가맹점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대형가맹점에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최근 마케팅비용을 상한의 적용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0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 0.55%에서 0.8%로 올렸다. 기존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으로 발생한 마케팅비용을 전 가맹점에 고르게 부과했다면 실제 마케팅이 진행된 가맹점을 선별해 비용을 청구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카드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학원, 통신료, 주유비 할인 등 혜택이 좋은 카드를 단종하거나 포인트 적립, 할인 혜

택을 잇따라 축소시키는 등 고객 혜택을 줄이고 있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최대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이고 할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카드사도 늘고 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갈등은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일정 부분 이익이 나와야 하는 산업이고 회사인데 가맹점 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이익 보전이 되지 않으면 이때까지 해왔던 무이자 할부와 같은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갈등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두발언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며 “가맹점 계약은 카드사와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창호 국장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 중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와 관련한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판 커지는 제3인터넷은행 진출 경쟁

네이버 빠진 자리, 키움과 손잡은 하나금융 '출사표'

신한금융 이어 하나금융도 도전장
“뉴ICT 기반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 착수”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놓고 네이버 불참으로 식었던 열기가 되살아났다.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대형 금융그룹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면서다.

하나금융은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주주는 키움증권이 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뉴(New) 정보통신기술(CT) 기반의 인터넷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구분	금융사	ICT업체
케이뱅크	우리금융, NH투자증권	KT
카카오뱅크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카카오
신한금융 컨소시엄	신한금융지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키움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SKT

하나금융은 국내에서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실시한 곳이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합작한 디지털뱅크인 '라인뱅크'와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하이(HAI)뱅크' 등을 비롯해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500만명의 통합멤버십 플랫폼 '하나멤버스', SK텔레콤과 합작한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Finnq)' 등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새로운 ICT 기술과 금융서비스 융합을 통해 기존에 손님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업계의 패러다임

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다. 한국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등 14년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을 주도하며 이종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손님 혜택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금융 역시 토스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도전을 공식화했다.

협업을 통해 신한금융이 보유한 금융

부문의 노하우와 안정성, 자금력에 토스가 가진 혁신성, 창의성을 더해 ‘혁신적·포용적’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과 토스는 예비인가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사의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선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신한금융은 토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

를 일으키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그간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신규 플레이어의 참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도 혁신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바란다”며 “인터넷은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도 도전장을 내밀면서 인터넷은행 시장에서의 5대 금융주 간 경쟁도 불 만해 졌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다. NH농협금융지주 역시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 지분 10%를 가지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을 주축으로 신규 인터넷은행 설립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내 카드 한눈에’ 간편조회 이젠 휴대폰 앱에서 ‘똑딱’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금액과 포인트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PC)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3일 개시 이후 두 달여간 이용건수가 총 13만1650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2194건이다.

제공정보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다.

BC·삼성·롯데 등 15개 카드사
결제금액·포인트 등 정보 제공

현재 서비스 제공 카드사는 15개사다. BC·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전업카드사 8개사와 IBK기업·NH농협·씨티·SC·대구·부산·경남은행 등 겸영카드사 7개사다.

핸드폰에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설치하고, 서비스이용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 후 본인인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금융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내 카드 한눈에’ 참여 카드사를 늘리는 등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이하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기능을 3분기 중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19. 3/4분기)

하반기에는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도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안상미 기자

부산銀 몸집 불리고, 전북銀 내실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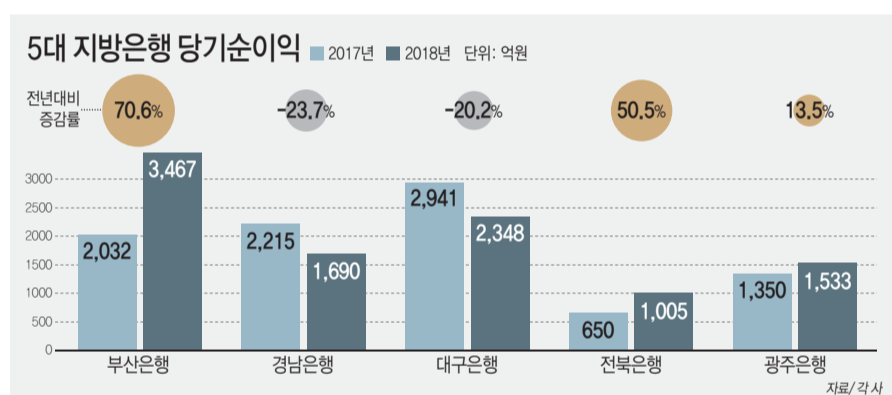
지방은행 지난해 실적 희비

부산은행 대출 확대로 순이익 ‘1위’
이자이익 증가율은 평균보다 하회
전북·광주銀, 이자이익 성적 ‘맑음’

지난해 3대 지방금융그룹 모두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실현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5대 지방은행은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은 대출을 풀고, 전북은행·광주은행은 대출을 조였지만 이자이익 부분에선 전북은행·광주은행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

지난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덩치를 키웠다면 내실은 전북은행·광주은행이 챙겼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등 5대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은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 3467억원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0.6% 성장한 셈이다. 뒤이어 대구은행이 2348억원, 경남은행 1690억원, 광주은행 1533억원, 전북은행 10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자 이익부문에선 정반대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군산지역 GM공장 폐쇄 등 이슈에도 전북은행의 이자이익은 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3886억원)증가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은행도 6023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0% 늘었다.

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규모 확대에도 내실은 챙기지 못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이자이익의 증가율은 2.3%에 머물렀다. 부산은행 이자이익도 1조2242억원으로 1년전보다 1.8%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은행 중 이자이익의 증가율이 낮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4~5년전부터 여신 구조조정, 총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했으며 최근엔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총당금도 많이 줄었다”며 “집단중도대출 만기가 작년부터 상환되기 시작했고 신규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급

KB국민銀, 중동·유럽 교두보... 1호점 개점

북부지역에 ‘인도 구루그램지점’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구루그램(Gurugram)시에 1호 지점인 ‘인도 구루그램지점’을 오픈하고 개점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은 행장,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자야쿠마르(Shri P. S. Jayakumar) 인도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 은행장 및 인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허 행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구



허인 KB국민은행장(왼쪽 여섯번째부터),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등이 지난 18일 인도에서 KB국민은행 1호 지점인 ‘인도 구루그램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루그램지점은 이들 진출 고객과 로컬 협력사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 행장은 “더 나아가 서남아시아의 거점점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및 유럽시장을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열린 자야쿠마르 인도 바로다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허 행장은 “양 은행간 포괄적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인도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현대해상 친환경부품 사용하면 보험료 8% 할인 혜택

현대해상은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사고로 수리 시 ‘친환경 에코부품(중고부품)’을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료를 8%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가입대상은 관공서·공공기관·일반기업 등의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부터다.

/김희주 기자 hj89@



5G, 3월 일반에 상용서비스 갈길 바쁜 이동사

영화 2400편 다운 '1초' 7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



LGU+, 라우터 장비 인터넷 백본망 구축
국내 통신사업자 중 최초로 64Tbps 적용
VR·AR·고화질 영상 등 유선-무선 연결

LG유플러스는 현재 장비보다 7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우터 장비를 인터넷 백본망에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초고화질(UHD)급 영화 1편을 담을 수 있는 DVD 2400장 분량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86테라비피에스(Tbps) 라우터 장비를 적용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라우터 장비의 7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가상·증강현실(VR·AR) 초고

화질 영상 등 콘텐츠가 저장돼 있는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무선망과 유선망을 연결해주는 라우터 장비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국내 통신사업자 중 64Tbps가 넘는 라우터 장비를 상용망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LG유플러스와 노키아가 함께 개발했다. 지난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멀티테라비트 네트워크 프로세서인 FP4 프로세서가 적용됐다. FP4 프로세서는 하나의 칩셋으로 2.4Tbps 속도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이상현 NW개발담당은 "인터넷 백본망에 86Tbps 라우터 장비 구축으로 네트워크 전 구간에서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서비스 제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인터넷 백본망에 구축된 86Tbps 라우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VR로 즐기는 게임·스포츠 5G '킬러콘텐츠' 확보 속도



'MWC 2019'서 VR 콘텐츠 등 공개 전망
SKT, 인기 온라인 3종 IP 사용계약 체결
KT, 애플리와 협업 멀티플레이 게임 선보

SK텔레콤과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앞두고 5세대(5G) 이동통신 '킬러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는 가상현실(VR)에 주력했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넥슨, 애플리와 손잡고 MWC 2019에서 VR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넥슨과 인기 온라인 3종 지적재산권(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게임 3종은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버블파이터'다.

이번 계약으로 SK텔레콤은 IP 3종을 활용해 '카트라이더 VR(가칭)' 등 5G 스마트폰용 VR 게임을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게임 개발은 넥슨의 주요게임 담당 출신이 주축이 된 VR 게임 전문사인 '픽셀픽스'와 SK텔레콤이 협업한다.

카트라이더 VR은 5G스마트폰의 초고속, 초저지연 속성을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카트를 조종하는 느낌을 제공할 전망이다.

넥슨과 추가 협력뿐 아니라 대형·중소개발사들과 함께 5G VR게임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KT는 애플리와 손잡고 5G 기반 멀티플레이 게임 'VR 스포츠'를 선보인다.

VR 스포츠는 야구·탁구·배드민턴 등 인기 스포츠 종목에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게임이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실제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실감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KT는 애플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VR 스



KT가 '기가 라이브 TV'를 통해 선보일 'VR 스포츠' 야구 편에서 타자가 플레이하고 있다. /KT



모델들이 VR기기를 쓰고, 카트라이더 게임 화면을 시청하고 있다. /SK텔레콤

포츠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 독점 유통권을 확보했다.

이번 MWC 2019에서 공개되는 VR 스포츠 야구 편은 기존 PC 기반의 유선 VR 기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던 게임을 무선 독립형 VR 기기 기반의 '기가 라이브 TV'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다. 여러 사람이 무선망에 접속해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다. KT는 MWC 2019 현장에 마련된 KT 전시관에서 투수와 타자가 즐기는 멀티플레이 야구 게임을 시연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센서 하나로 생체인식에 VR·AR 구현까지 삼성 '5G 장비'로 MWC 전세계에 송출

LG이노텍, G8 쌍극 센싱모듈 양산

LG이노텍이 최첨단 3D 센싱 모듈 시장을 개척하고 선점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최근 'LG G8 쌍극' 전면에 장착되는 ToF(비행시간 거리 측정) 모듈을 양산했다고 19일 밝혔다.

ToF 모듈은 사물의 입체감과 공간정보 및 움직임을 인식하는 최첨단 3D 센싱 부품이다. LG이노텍이 만든 제품은 인식 가능한 구간 거리가 길면서도 전력소모가 적고 크기를 줄였다. 생체인증과 동작 인식,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구현까지 활용된다.

LG이노텍은 3D 센싱 모듈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기계를 만지지 않고도 조작할 수 있고, 사용자 인증과 화면 전환 등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시장 규모도 지난해 29억달러에서 2022년 90억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G이노텍은 4.6mm ToF 모듈을 양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LG이노텍 ToF 모듈. G8 쌍극 전면에 탑재될 예정이다. /LG이노텍

확보한 상태로, 카메라모듈 노하우와 광원 및 렌즈 등 핵심 부품 기술을 내재화해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 고객사 요구에 따라 모듈을 맞춤 개발해 공급할 수도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3D 센싱모듈은 터치 등 기존 2D 기반 입력 기술 이후 휴대전화의 기능을 한 단계 혁신시킬 차세대 3D 기반 입력 장치"라며 "카메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25일부터 28일까지 단독 생방송

삼성전자 5G 통신장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전 세계에 송출한다. 삼성전자는 25일부터 28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MWC 2019를 단독으로 생방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식주관사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 A)와 협력했다.

이번 생방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상용화한 5G 기지국(AU)와 단

말(CPE)을 활용해 만들어진다. 유선 광케이블을 대체해 HDTV 영상을 최대 1Gbps 속도로 지연시간 없이 전송하게된다.

이름은 '모바일 월드 라이브'로, MWC 2019가 열리는 스페인 피라 그랑 비아 전시장과 바르셀로나 지역 280여개 호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좌측 상단에 'Broadcast Over Samsung 5G'를 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 팀장 서기용 전무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축제인 MWC19에서 삼성전자의 앞선 5G 기술을 활용해 미래 방송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5G 통신의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MA 저스틴 스프링햄 미디어 콘텐츠·방송 담당은 "삼성전자와 GSMA는 5G 기술을 활용해 실감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대우전자-대우위니아 '포털대우'로 사내망 통합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가 화학적 결합을 완료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가 사내망을 신규 구축한 '포털대우'로 통합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한지 10개월만이다. 그룹 규모에 맞춰 계열사와 부서 및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 기능을 강화했다.

통합 포털은 계열사별 시스템 메뉴를 제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접근성을 제고했고, 모바일 기기 연동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우그룹은 자유롭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해 이같은 사내망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SK이노의 개방형 혁신...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

美 개발사와 오픈이노베이션
‘리튬 금속전지’ 공동개발 추진
전도성 유리분리막 연구 투자
기술 라이선스 확보 옵션 검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기술 개발 업체에서 진행중인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다.

18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미국 배터리 기술 개발 업체인 폴리플러스 배터리 컴퍼니와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폴리플러스가 보유한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향후 지분 투자 및 기술 라이선스 확보 옵션도 검토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2021년 하반기



18일(현지시간) 폴리플러스 배터리 컴퍼니와 SK이노베이션이 리튬 금속 전지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 /SK이노베이션

까지 전도성 유리 분리막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 하고 이를 리튬 금속 전지 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리튬 금속 전지는 흑연대비 10배 이상의 용량을 지닌 리튬 음극을 사용하기 때

문에 에너지 밀도가 약 1000Wh/l 수준으로 일반 리튬 이온 전지보다 두 배 가량 높은 미래 전기차 배터리 모델 중 하나다. 그러나 일반적인 리튬 금속 전지는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리튬이 적

체되는 덴드라이트(금속 표면 어느 한 부분에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가 발생, 분리막을 통과·훼손해 결국 화재가 일어난다는 한계가 있다.

전도성 유리 분리막은 이러한 덴드라이트가 분리막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리튬 금속 전지를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상용화를 위한 핵심 소재로 구분된다. 이 기술을 통해 향후 리튬 금속 전지 상용화를 더욱 앞당길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 연구원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방식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첫 번째 사례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업체, 대학,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 확보 방식이다.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하고 기술 보유 업체와 연대해 개

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개발 트렌드를 반영, 적시에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제약, 친환경에너지 소재 업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미국, 유럽 소재 주요 연구소,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이번 투자 협약과 같은 사업 협력 생태계까지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링, 친환경소재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연대를 구축 중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작년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결정했다. 국내를 비롯한 중국 창저우, 헝가리 코마름, 미국 조지아 지역에 배터리 생산 설비를 구축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추가 수주를 통해 총 생산량을 60GWh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제네시스 G90 리무진.

제네시스, 더 넓어진 ‘G90 리무진’ 출시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
프레스티지 트림 1억5511만원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플래그십 세단 ‘G90 리무진’ 출시했다. G90 리무진은 19일부터 공식 판매된다.

G90 리무진은 기존 모델과 비교해 전장이 290mm 늘어나 더욱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급 가죽과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시트 등 최고급 사양을 적용했다. 시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영상 시청과 독서 등 여러 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리무진 전용 무늬와 투톤스티어링 휠, 외장 색상 등도 추가했다. 파워트레인에는 5.0L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가 맞물린다.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는 각각 425마력, 53.0kg·m다. 여기에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갔다.

G90 리무진은 프레스티지 1개 트림만 단독으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은 1억 5511만원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는 “G90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이며 이번에 출시한 G90 리무진 모델은 고급감을 강화하고 최상의 실내 공간을 완성했다”며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당당한 행보를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Oil, 아람코 싱가포르와 2.6조 계약

경유, 납사, 항공유, 휘발유 등 공급

S-Oil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아람코 트레이딩 싱가포르와 약 2조6076억 원 규모의 정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식했다.

계약금액은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12.5% 수준이며 계약 제품은 경유, 납사, 항공유, 휘발유 등이다.

S-Oil 관계자는 “계약금액은 본 계약



의 최저 예상 물량과 2018년 12월 평균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및 환율 기준으로 계산됐다”며 “향후 실제 공급물량, 유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LG전자, ‘협력회’ 임원들과 신년 간담회

“협력사 생산성이 ‘상생’의 토대”

조성진 부회장, 상생의지 재확인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이 협력사들에 상생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부회장은 18일 협력사 모임인 ‘협력회’ 임원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조 부회장은 이날 협력사들의 생산성이 상생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협력사 임원들은 경쟁력을 공유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조 역량을 높

이자고 결의했다.

앞서 LG전자는 협력사에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LG전자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인적자원 개발도 돕고 있다. 운영자금 지원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최고경영진이 정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방문해 협력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회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진정한 상생협력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조성진 부회장.

/LG전자

포스코대우, 브루나이 LNG 사업 확대

페트롤리움사와 협력 워크숍
가스전 탐사 등 전략 구체화

포스코대우가 브루나이 국영기업과의 액화천연가스(LNG) 가스전 탐사 등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포스코대우는 인천 송도 사옥에서 브루나이 자원개발 국영기업인 페트롤리움 브루나이사와 LNG 밸류체인 사업 협력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LNG 사업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1월 페트롤리움 브루나이사와 체결한 ‘LNG 밸류체인 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MOU’의 후속 회의로, 가스전 탐사·개발, LNG 터미널 등 인프라 개발, LNG 벙커링 및 트레이딩 등 양사의 에너지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최근 포스코는 그룹차원의 100대 개혁 과제 중 LNG를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했다. 포스코는 해외 사업 개발 및 LNG 트레이딩 경험이 풍부한 포스코대우가 그룹 LNG 통합 구매, LNG 트레이딩, LNG 연계 해외 인프라 사업 개발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페트롤리움 브루나이사는 브루나이의



포스코대우와 페트롤리움 브루나이의 에너지사업 담당자들이 지난 12일과 13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이틀간 워크숍을 개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 국영기업으로, 에너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류(Upstream) 부분에서 브루나이 국내의 가스전 탐사 및 개발 사업 공동 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또 LNG 액화·수입 터미널 등 인프라 자산에 대한 프로젝트 공동 투자를 검토하고, 향후 LNG 벙커링·공급까지 아우르는 LNG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사업 정보를 교류해 공동으로 발굴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포스코대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입터미널, 벙커링 등 LNG 관련 인프라 사업과 LNG 트레이딩 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했다”며 “에너지 사업에 있어 다양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양사의 전략적 협업은 양사 모두에게 사업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무역 분쟁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 25조1739억원, 영업이익 4726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1919년 3월 1일
200만 국민이 참여했던 3.1 만세운동

세상을 바꾼 작은 힘

열여섯 어린 소녀의 작은 외침이, 3.1 만세운동의 거대한 함성으로
상하이 좁은 골목에서 시작한 꿈이, 독립운동의 거대한 교두보로
그 작은 힘들이 모여 오늘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KB금융그룹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국민이 지킨 역사 | 국민이 이끌 나라 |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KB KB금융그룹

증권 다이제스트

이탈리아 밀라노 A급 오피스에 투자하세요!
한국투자 밀라노 부동산투자신탁1호 (파생형)
단독 모집!
 모집기간: 2.19(화) ~ 2.21(목)

한국투자증권
밀라노 부동산펀드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이탈리아 경제, 금융, 패션의 중심지 밀라노에 위치한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공모펀드 '한국투자 밀라노 부동산투자신탁1호(파생형)'를 오는 21일까지 단독 모집한다. 국내에서 펀드로 모집되는 약 550억원과 펀드 운용사가 이탈리아 현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포함해 총 1240억원을 오피스건물에 투자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프리미엄 타이어 기업 피렐리 타이어(Pirelli Tyre) 글로벌 R&D센터가 투자 부동산의 100%를 임차 중이다. 임대차 기간은 2032년 12월까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ELS 및 DLS, DLB 10종 공모
 - 2/22(금)까지 모집

KB증권
연 6.5% ELS 등 10종

KB증권은 22일까지 KOSPI2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 유로스탁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6.5%(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801호(3년만기·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보장형 추가연계증권(ELS) 6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2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등 총 10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797호(1인텍스 스탭다운형)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NH투자증권 모바일증권 나무
카카오페이 제휴 CMA상품

업계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금융제휴, 연 3.5% CMA 상품 판매

NH투자증권 모바일증권 나무
카카오페이 제휴 CMA상품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는 증권사 최초로 국내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연 3.5%(세전) CMA 발행어음 상품을 판매한다. 업계 최초로 주식수수료 평생무료를 시작했던 NH투자증권의 모바일 브랜드 나무가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를 통해 연 3.5%(세전) 특급 CMA 발행어음 상품을 선착순 10만명에게 제공한다. 상품가입 한도는 200만원이며, 6개월 만기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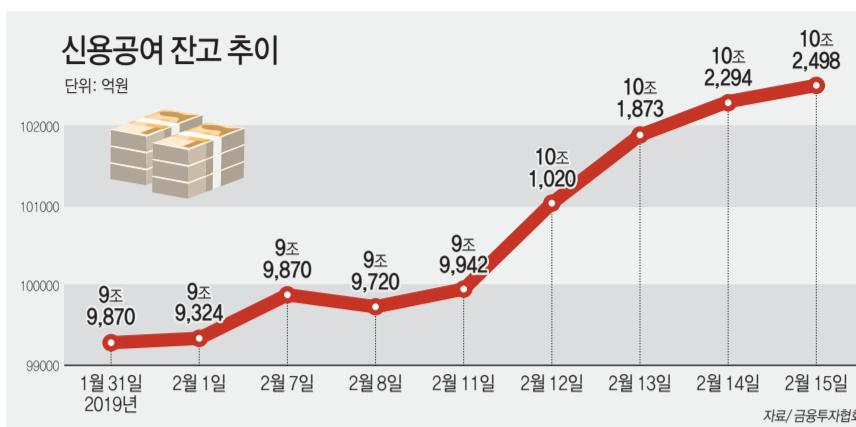
빛내서 주식투자 10조... 신용거래 '주의보'

신용거래용자 연초 이후 최고치 증권사, 남북경협·정치테마주 등 신용거래 제한으로 '리스크 관리'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였던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또 다시 증가하며 연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10조2498억원으로 연초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12일,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말한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해 5월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을 찍은 이후 줄곧 내림세를 보였다. 주가가 급락했던 지난 10월부터는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0조 원 아래로 유지돼 왔다. 증시 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10% 안팎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났고, 또 다시 빛을 내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신용거래용자의 이자율이 일반 은행 대출보다 크게는 세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개인투자자의 신용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다.

실제 신용거래용자 잔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셋대우의 경우 3개월 동안 돈을 빌리면 6.9%(체차법·구간별 이자율 적용)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잔고가 많은 키움증권의 경우 이자율은 9% 수준이다.

이밖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국투자증권(8.8%), 삼성증권(8.6%), NH투자증권(8.4%), KB증권(8.0%·체차법) 등도 8%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다. 1억을 빌리는 투자자들은 3개월 내 8%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상승률과 더불어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7일부터는 전체 신용거래용자 잔고 중 코스닥의 잔고가 유가증권시장을 역전해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근 큰 주가 변동성을 보이는 남북경협주,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미래셋대우는 유시민 테마주 와이비넷, 오세훈 테마주 진양산업 등에 대해 신용거래에 제한을 뒀고, NH투자증권은 황교안 테마주 한창제지, 남북경협주인 한국내화 등을 신용공여 불가 종목으로 설정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테마주 같이 위험한 자산에는 신용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증권사가 대응하는 걸로 안다"면서 "금융당국도 증권사 대출잔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한화건설, 1829억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수주

경기도서 기술형 입찰 발주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에서 기술형 입찰로 발주한 1829억원 규모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되는 7호선 전철 연장사업(총 3개공구) 중 2공구 공사다. 터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이 공사는 철도분야의 대형 기술형 입찰로 관심을 모았으며,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해 3개 대형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였다.

이번 공사는 설계대 가격 비중이 65대 35에 달하고, 설계심의 점수에 7% 강제

차등을 적용하는 등 설계 기술력이 심의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한화건설 측은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도심지 통과구간 최신의 Modern-Rock TBM 공법(발파공법이 아닌 회전식 터널 굴진기를 활용한 굴착 공법)을 적용하고,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한 별도의 피난대피시설을 계획하는 등의 혁신설계를 선보였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로 경기도 의정부시 송사동~저금동 구간 광역철도 4.412km와 정거장 1개소, 환기구 3개소, 신호소 1개소 등의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7호선 전철 연장사업)는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완공되면 서울 접근성을 비롯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제2공구 103 정거장 조감도. /한화건설

한 지역 교통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화건설 박용득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은 "올해는 기술형 입찰, 민간제안사업 등 수익성 중심의 토목환경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신한은행, 보육시설에 학용품세트 전달

'입학 축하 학용품키트' 제작 봉사 위성호 은행장·임원 등 48명 참여

신한은행은 1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전국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첫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봉사활동은 매년 은행장과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참여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총 2622명에게 학용품 세트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국 166개 보육시설 아동 및 청소년 770명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학용품 키트를 전달받은 청소년들은 2013년 초등학교 입학 시 신한은행의 첫번째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통해 학用品을 지원받은 학생들이며, 중학교 입학에 맞아 다시 한번 신한은행과 인연을 맺게 됐다.

위성호 은행장과 진옥동 은행장 내정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왼쪽부터), 위성호 신한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내정자가 1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첫 입학 축하 학용품 키트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자 및 임원·본부장 48명은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에게 필요한 노트, 필통 등 학용품 키트를 만들어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당행 임직원들이 지난 1년간 승진, 생일 등 개인 및 소속부서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부하는 '좋은 날 좋은 기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기부금으로 준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금융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

NH농협금융지주는 19일 임직원 및 가족봉사단이 서울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NH농협금융 우리농산물 건강희망상자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광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농협금융의 자긍심을 공유하고, 이웃사랑 실

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김 회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건강을 기원하는 오곡을 담은 건강희망상자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전통문화와 결합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신한금융투자 4년연속 가장존경받는 기업 1위

신한금융투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CA)가 주관한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금융투자사업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6년째를 맞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 주주, 직원, 사회, 이미지 가치 등 기업 전체의 가치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최고 권위의 인증제도다.

신한금융투자는 혁신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금융투자업종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금융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신한금융투자 윤병민 인재육성부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며 직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시장을 선도해 나가지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헬리오發 전세값 하락, 갭투자 지역 중심 빠르게 확산

강통전세 대란

(上) 역전세·강통전세 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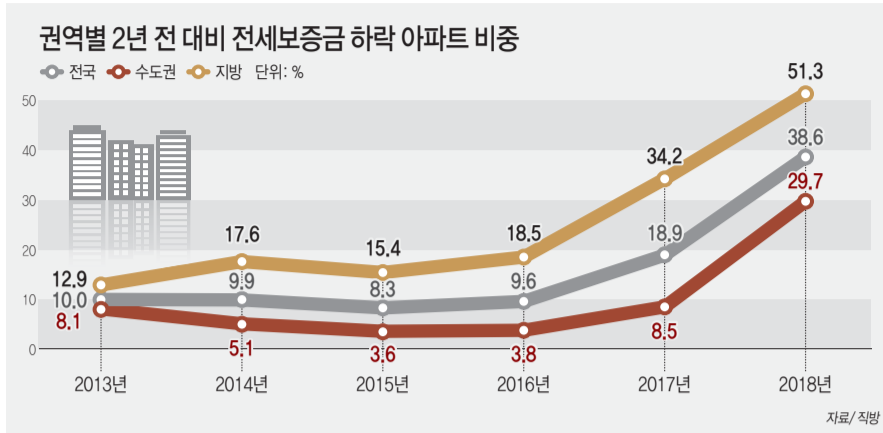
갭투자 광풍·매매 대신 임대 몰려
정부 규제·집값 하락에 거래 급증
올해도 공급·입주 물량 증가 전망

‘과열에서 급랭으로’.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주택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광풍이 불던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고공행진 하던 아파트 값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역전세’, ‘강통전세’ 등 또 다른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미분양, 전셋값 하락, 세입자 피해 등의 문제가 산적한 전세시장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다주택자 사이에서 갭투자가 성행하고, 매매가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임대로 눈을 돌린 영향이다.

정부의 잇따른 청약·매매 규제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자 재계약 시점



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밀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역전세’, ‘강통전세’ 공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매매거래 끊기고 전세거래 ↑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절벽을 이룬 반면, 전세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739건으로 전년 17만1080건 대비 5.1% 늘었다.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눈길을 돌리고, 투자자들은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면서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1월 기준으로 봐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8만618건)은 작년 대비 16.9%, 아파트 외 주택(8만8163건)은 9.1% 각각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전세 거래량(10만2464건)은 전년 대비 18.9% 늘었다.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수도권의 전세거래량은 6만708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1.6%를 차지했다. 서울은 총 5만4545건의 전·월세 거래 중 59.7%인 3만2578건이 전세 거래로 이뤄졌다.

업계에선 수도권에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고, 등록 임대주택수가 늘면서 전세 거래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선 1만 가구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이 지속되며 일대 매매가와 전셋값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도 전세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38만 가구다. 그중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4만2936가구로 지난해(3만6596가구)보다 17% 가량 증가한다. 아울러 앞으로 매매시장이 장기 위축되면 매수·매도 관망세도 지속돼 전세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전셋값 ‘뚝’ 그러나 입주 물량이 증가하자 전셋값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한 아파트가 전국 평균 38.6%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4채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역전세, 강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이 계약 시점인 2년 전의 가격보다 내려가면 만기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

값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강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지방은 절반이 넘는 51.3%, 수도권은 29.7%가 2년 전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 비중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2016년 1·4분기에 이 비중은 전국 8.8%, 수도권 4.1%, 지방 17.5%였으며 한해동안 증가폭도 1% 미만에 그쳤다. 그러다 지방은 2017년 1·4분기, 수도권은 같은 해 3·4분기부터 2년 전 대비 전셋값 하락 아파트의 비중 증가폭이 커졌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셋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입주물량’을 꼽았다. 그는 “2017년 38만호, 2018년 44만호, 올해 38만호로 3년간 120만호가 입주하면서 공급 증가가 전세 수요를 상쇄하는 것을 넘어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경제 불안한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CDS프리미엄 최저… 해외 자금조달 ‘호시절’ 오나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져
북미 정상회담·쇼 신흥국 흐름 영향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여건이 유례 없는 호시절을 맞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아져 정부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덜 든다.

CDS프리미엄이 낮아진 것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금융시장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에서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에서 종전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데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성장을 보는 눈높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다.

대북 제재 완화 등 마지막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8일 기준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2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 주에는 31bp까지 떨어졌다.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 하락은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 위험이 낮아져 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미다.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 견실한 대외건전성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버린 리스크(sovvereign risk·국가 신용 위험)가 현저하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방침,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이런 흐름이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 김윤서 연구원은 “미국의 체제보상은 안보리 제재 완화보다 제한적 남북 경험 허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에 벌크 캐시(Bulk Cash)가 유입되지 않는 범위). 이를 토대로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경험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CDS프리미엄은 약 1년 전인 지난해 2월 초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59bp)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2017년 9월 북한발 지정학적 우려가고 조졌을 때는 76bp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엔 69bp를 기록했다. 2012년 9월 이후에는

100bp 선을 넘지 않았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나타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말해 준다”며 “한국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회복신호를 보이지 않아 큰 의미를 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IB 9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 말 기준 연 2.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 2.6%다.

노무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68.5%) 등 자본재 수입(-21.3%)이 감소해 앞으로 기업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



19일 서울 서대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업계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일간 기준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지난 15일 이후 연이어 상승했다.

/연남뉴스

기름값 3개월만에 상승 정책효과 사실상 마무리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실행 이후 약 3개월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책 효과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를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의 합을 전체 주유소 개수로 나눈 값인 ‘일간 기준 평균 판매가격’이 지난 15일 이후 연이어 올랐다. 15일 평균판매가격은 1342.24원이었으나 16일에는 1342.55원으로 0.31원 상승했고 이어 17일에는 다시 0.07원 올라간 1342.62원으로 집계됐다. 18일에는 전날 대비 다시 0.13원 상승해 1342.75원까지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이후 일간 기준으로 총 4차례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전날보다 올라간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상승폭이 0.1원 이하 수준이어서 보험세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 상승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15일 이후 기존보다 눈에 띄는 상승폭이 보였고 상승세는 3영업일째 이어지고 있어 기름값 하락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창립 50주년’ SGI서울보증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창립 50주년 기념식·비전 선포식

비전·발전 방향 공유 자리 마련

SGI서울보증은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SGI서울보증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임직원과 대리점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서울보증의 지난 5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

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립기념 포상 시상식에서는 총 116명의 직원과 50명의 모집종사자가 수상했다.

창립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비전 선포식에서는 고객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GI서울보증의 비전은 ‘유어 베스트 크레딧 파트너(Your Best Credit Partner·당신의 최고 신용 파트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세계 일류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객 ▲디지털 ▲파트너십경영 ▲SGI 프라이드(Pride) 등 4가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선도적 경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10년 내 명실상부한 최고 보증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상택대표이사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2019년을 서울보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톱3를 넘어 세계 수준의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글로벌 보증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1969년 최초의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전업사로 출발해 지난 50년간 각종 이행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이동통신신용보험 등을 제공해 왔다.

/김희주 기자 hj89@

한은 총재의 경고 “제조업 경쟁력 제고는 생존의 문제”

이주열, 기업인과 경제동향 간담회 제조업-서비스업 간 경계 무너져 새 경쟁구도 열려... 재도약 기회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광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임승윤 한국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무, 장윤중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염용섭 SK경제경영연구소장 등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글로벌 가치사슬, 리쇼어링 등 새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내 업종 간,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통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동종 기업뿐 아니라 과거 경쟁 관계가 아니

었던 여타 업종 또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과도 새로이 경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분업 유인이 약화했다”며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독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제조업 경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절한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두번째)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KB금융, 'KB 골드앤와이즈 송도센트럴파크' WM복합점포 신설

KB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 송도센트럴파크' 은행·증권 자산관리(WM) 복합점포를 신규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증권 원스톱(One-Stop)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WM복합점포를 총 66개로 확대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KB국민은행-KB증권 복합점포 개점행사에서 정경영 KB국민은행 인천지역영업그룹 대표(왼쪽 여섯번째), 이채규 KB증권 WM사업본부장(오른쪽 세번째) 및 임직원, 고객들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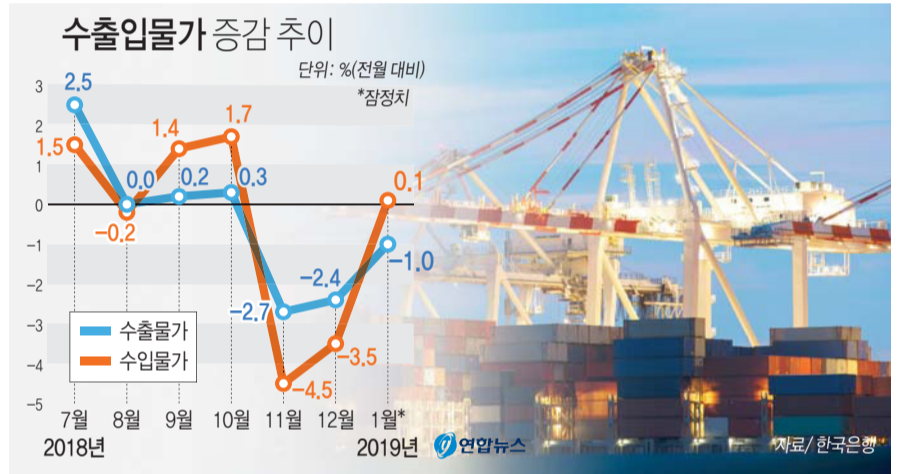
반도체값 쇼크... 수출물가 석달째 '내리막'

수출물가 82.95, 27개월 만에 최저 디램수출 가격 6개월 연속 내림세 반도체값 하락·원화가치 상승 영향

지난달 수출물가지수가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디램(DRAM) 등 전기 및 전자기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다. 반면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수출물가지수는 82.95로 전월(83.80) 대비 1.0%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80.68을 기록한 이후로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다.

수출물가가 하락한 원인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지난달 디램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14.9% 하락했다. 지난 2018년 8월(-21.3%)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내린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플래시메모리(-5.3%), TV용 LCD(-2.6%) 등도 내리면서 전기 및 전자기기는 3.3% 하락했다. 이는 2016년 4월(-3.8%)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0.4%) 등이 하락하면서 지난달 공산품 가격은 1.0%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1월 수출물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1차 금속제품 등의 가격 하락 및 원화가치 상승 영향을 크게 받았

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해 12월 1122.90에서 지난달 1122.00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4.98로 전월(84.89) 대비 0.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도 올랐다. 1월 월평균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59.09달러로 전월(57.32달러) 대비 3.1% 올랐다. /김희주 기자

시세비 85% 이하... 사회주택 2000가구

국토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 LH 500가구·서울시 1500가구 이상

시세 대비 85% 이하의 낮은 임대료를 받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500가구, 서울시 1500가구 이상 등이다.

아울러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

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입주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전체 세대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토록 한다.

국토부는 또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해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年 40만개 감소

파이터치리 연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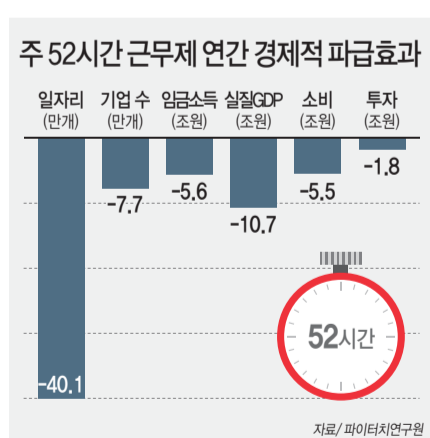
노동 감소→임금 상승→일자리 감소 숙련공 일자리, 비숙련공 比 1.4배 ↓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가 연간 40만1000개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0조 7000억원 줄어든 것인 추산이다. 아울러 투자는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터치리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자리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도 덩달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위 임금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 임금소득 감소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따라오는 결과이고, 일자리 축소는 생산을 감소시키고 결국 GDP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지리는 숙련공(-23만5000개), 비숙련공(-16만6000개) 할 것 없이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근로시간 단축시 숙련공 일자리가 23만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숙련공의 일자리 감소는 비숙련공의 약 1.4배에 달한다.

비숙련공의 일자리는 자동화가 대신한

다. 반복적 노동을 하는 비숙련공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축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선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업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초과수당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소득 증가가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족도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약 주 52시간 근무제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 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말레이시아 골프 9일 145만원

쿠알라 인근 명문 골프장 2색 골프, 5성급 호텔
몬테레즈 CC+ 술탄(KG사스) CC
불포함:미팅샌딩비 50\$



4성급 UPM 9일 139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50\$
겐팅아와나 6일 129만원 (1/26 출발)
볼포함:미팅샌딩비 50\$
몬테레즈 9일 139만원 (5성급 호텔)
볼포함:미팅샌딩비 50\$
겐팅 아와나 9일 159만원(해발 1100m)
볼포함:미팅샌딩비 50\$

'치앙마이'보다 시원한 '치앙라이' 5/6일 149만원~

대한항공 직항, 목출발 5일, 일출발 6일

1월 10일 / 17일 (목요일) 출발
1월 6일 / 13일 / 20일 (일요일) 출발 164만원
볼포함사항:캐디팁, 캐디피, 카트비, 공항-리조트송영비



치앙마이 3박 5일 126만원~
볼포함:중식, 캐디팁, 기사&가이드경비



설 연휴 골프 한정 특가

2019.2/2 출발
겐팅아와나 5일 129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50\$
2019.2/1 출발
겐팅아와나 6일 149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50\$
글랜메리 5일 139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50\$
2019.2/2 출발
대만 가오슝 3박 4일 159만원
볼포함:개인비용 및 매너팁, 가이드&기사팁(50\$)
2019.2/3 출발
중국 해구 미션힐 6일 219만원
볼포함:캐디팁(100위엔/18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바루

10대명문골프장
쿠알라글랜메리 6일 139만원
해발 1100m 5성급 호텔
1월 23일 출발
볼포함:미팅샌딩비
겐팅아와나 9일 159만원 /6일 135만원 /15일 235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몬테레즈 9일 139만원 실속가성비극
1월 07일 출발
볼포함:미팅샌딩비
조호바루 폰데로사 5일 69만원 / 3색 골프 119만원
볼포함:미팅샌딩비

필리핀 클락/마닐라/세부

마닐라바탕가스 명문 2색 4일 799,000원
사잇포인트C.C / 말라라얏C.C, 목요일 / 금요일 출발
볼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클락 베버리 3박 5일 769,000원
볼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클럽공항세
세부 인터내셔널 3박 5일 700,000원
볼포함사항:캐디/카트, 공항왕복(미팅/샌딩차량비용), 현지공항세

태국 방콕 / 파타야

방콕 2색 골프 3박 5일 110만원
아유타야+노던라잇
볼포함사항: 캐디피, 캐디팁, 중식
파타야 3색 골프 3박 5일 109만원
시암 / 람차방 / 피닉스 CC
볼포함사항: 캐디피, 캐디팁, 중식

라오스

부영CC 7일 139만원
볼포함사항:전동카트+캐디팁, 캐디팁, 공항-골프장 왕복 교통비 및 직원 봉사료
덴사반CC 9일 135만원 (5성급 호텔/식사)
볼포함사항:카트비+캐디피+캐디팁, 미팅샌딩비
3색 골프 5일 99만원 부영CC/롬비엔CC/라오CC/레이크CC
볼포함사항: 개인경비, 매너팁, 캐디팁, 클럽중식

일본 고베 골프 특가 3일 699,000원

오키나와 3색 골프 4일 109만원
오키나와CC / 오션캐슬CC / 슈레이CC
볼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미야자키 니치난 4일 54홀 949,000원
토요일 출발
볼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아와지스프링스 3일 54홀 699,000원
볼포함사항: 캐디피,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장기골프특가

태국
카오야이시티 1일 8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아티타야 1일 10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베스트오션 1일 13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다이너스티 1일 12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라차캄 1일 14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카오차녹 1일 95,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필리핀
메르세데스 1일 70,000원
포함: 그린피18홀, 카트, 캐디,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인터내셔널 1일 7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스플랜디도 1일 11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갈릴라얏 1일 90,000원
포함: 숙박(2인1실), 식사(한식), 18홀 그린피, 차량, 기사/가이드

베트남 나트랑/다낭/호치민/하노이

나트랑 빈펄+다이아몬드CC 5일 129만원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TAX, 리조트 숙박(2인 1실), 식사(조/석식), 골프 그린피/캐디(전동카트, 여행자보험)
다낭 3색 골프 5일 149만원
포함사항: 숙박비, 조식+석식(특상), 시푸드점, 골프장식, OK 부페, 가이드, 그린피+캐디+카트, 차량, 호이안부어, 다낭시내관광, 전신마사지 90분, 전월정 1일 1명시원한 생수, 열대과일 제공
호치민 골프 5일 10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호텔 차량, 일상생활용품, 사사 가이드, 골프-편54홀 그린피+캐디피
하노이 스카이라이프+롬비엔 C.C 14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스카이라이프CC, 롬비엔CC-2색 그린피(일-금:27홀/토, 일:18홀)/전월정-숙박(조식)

대만 가오슝/타이페이

가오슝 VIP 3박4일 125만원
볼포함사항: 전동카+캐디피+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청주]타이페이(FE) VIP 3박 4일 850,000원
볼포함사항: 전동카+캐디피+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괌/사이판

괌 스타츠 3박5일 145만원
볼포함사항: 캐디피+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3박 5일 149만원
볼포함사항: 캐디피+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중국 광저우/하이난 평균 23도

광저우 남사 5일 119만원 / 실버마운틴 9일 149만원
볼포함사항: 픽업비, 캐디팁, 비자비
하이난 미량만 5일 109만원~ /블루오션 6일 849,000원
볼포함사항: 미팅샌딩, 캐디팁,

IL Tour 02-541-4242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fcondo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02-542-9822 카카오톡 아이디: golfcondo



한국/중국/일본/러시아 CRUISE
2019년 5월 호도 여행 예약
6월 1,880,000원~



Table with 3 columns: 4/26 인천 출항, 5/1 부산 출항, 5/2 속초 출항, 5/6 속초 출항. Includes ship names like 한중일 전세 크루즈 6일 and 한러일 전세 크루즈 5/6일.

코스타 세레나 호
11만 4천톤
전장: 290M
전폭: 35M
수용인원: 3,780명
롯데관광 크루즈 판매점
02-541-424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에 필수 건강 파트너! 사우나는 집에서... SALE



-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세포재생 및 열액순환 향상
원적외선 사우나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캐나다산 적삼목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원적외선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자동온도조절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인체공학적인설계

농막, 캠핑하우스 리치하우징 문의: 1544-6299 24시간 상담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아이비리더스 정광천 대표

‘스카이로드’로 하늘길 지킨다 전세계 5만 공항을 고객으로

전 세계 하늘 길을 노리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이 있다.

비행절차 및 공역설계 프로그램인 ‘스카이로드(SKYROAD)’를 개발해 5만개에 육박하는 공항을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아이비리더스(아이비리더스)와 정광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비행절차란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고 공역을 벗어나 본궤도에 올라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항공기 안전 등을 위해 일정 높이의 하늘을 특정범위로 나는 것을 공역이라고 한다.

아이비리더스가 국제 과제를 통해 야심차게 만든 스카이로드는 이같은 공역들이 비행절차와 공역을 보다 수월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광천 대표는 “지금까지는 비행절차 설계 등을 수작업이나 캐드(CAD) 프로그램으로 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설계자가 실수할 경우 오류 가능성이 큰 등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스카이

비행절차·공역 설계 프로그램 국토부·대기업 손잡고 성장

로드를 국제 규정을 기반으로 계기 비행 절차 및 공역 설계, 장애물 제한 표면 설계,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의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엔 저비용항공사가 늘어나면서 공역을 오가는 항공기가 다양화되고, 항공레포츠 등의 수요도 확대돼 스카이로드와 같은 프로그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대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춘 공항은 국내에 20여 곳, 해외까지 포함하면 약 5만 곳에 달할 정도로 많다”면서 “이같은 항공관제 프로그램은 건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정도여서 대기업보다는 우리와 같은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2003년 당시 설립한 아이비리더스는 웹 기반의 조직 관리 솔루션이나 e-Biz 통합개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게 본업이었다. IB PR O#, IB Sheet pro, IB sheet 7 등이 대표 제품들이다. 공공기관, 금융권, 통신사, 건설사 등 2000여 곳이 아이비리더스의 고객이다.

제품의 쓰임새를 이해하기 쉽지만 아 몰랐더니 정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전산개발자, 시스템통합(SI) 업무 관련자 등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리하게 개발하고, 사용자환경(UI)에 최적화된 편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버전인 IB Sheet 7의 경우 시스템 개발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지보수도 효율적이어서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장점이 많다.

이처럼 주로 B2B 영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 항공분야에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 들어왔고, 신사업 차원에서 항공관제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시장은 크지 않지만 세계 시장은 무한하다.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쉽지 않고,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 등과 손잡고 나간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것이다.” 정 대표의 바람이다. 물론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 실제 에어버스 관계자가 아이비리더스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15주년을 맞은 아이비리더스는 전 직원이 베트남 푸꾸옥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정 대표를 비롯해 60명이 가까운 임직원들이 평소에도 가족처럼 지내다보니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자유복장은 기본이고 여러 휴가제도, 생일 및 출산 선물 지급, 골프·낚시·먹방 각종 사내 동호회 운영 등 복지제도도 두루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창립한 뒤 16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성장도 했다. 순이익이 나면 30%는 성과급으로, 30%는 연구개발에, 나머지는 미래를 위한 준비용으로 유보해 놓고 있다.”

정 대표가 보여준 재무제표상 아이비리더스의 2017년 기준 부채비율은 업계 평균인 157%에 한참 못미치는 39%였다.

아이비리더스의 IB는 ‘이노베이션 비즈니스(Innovation business)’의 약자다. 정 대표와 50명이 훌쩍 넘는 임직원들이 또다시 어떤 ‘혁신(이노베이션)’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bada@

“화장품, 구독하고 배달 받자!” 피부·취향 맞춰 당일배송까지

아모레퍼시픽·애경·올리브영 등 O2O 서비스로 3시간 내 쿵 배송

화장품 업계가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다. 유통 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화장품도 배달해주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소비자의 피부, 취향, 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당일 배송까지 가능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헬스앤뷰티(H&B)스토어 올리브영 등이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형태는 다양하다. 올리브영의 즉시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3시간 내에 가까운 매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오늘드림’은 H&B스토어 업계 최초의 배송 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결과다. 아직은 서비스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고객 이용 후기 등을 통해 ‘쿵배송’에 대한 좋은 반응이 이어진다. 통상 2~3일 걸리는 택배 소요 시간을 3시간 내로 확 줄였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지난달부터 주문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올리브영 측은 ‘오늘드림’ 서비스를 향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서울, 인천에 이어 부산, 광주, 대구 등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리브영의 ‘오늘드림’ 서비스.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스테디 홈페이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마스크팩 브랜드 스테디(STEADY:D)와 애경산업의 스킨케어 브랜드 플로우(FLOW)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스테디는 ‘1일 1팩’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마스크팩 정기 배송 서비스인 ‘스테디 박스’를 운영 중이다. 공식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과 주기, 요일을 지정하면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일 동안 4단계로 구성된 마스크팩을

사용하면서 피부 사이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다. 5일·10일 플랜으로 나뉘며 미백, 주름개선, 수분보습 등 3가지 라인으로 구성돼 선택이 가능하다.

애경산업의 플로우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소비자가 피부를 진단하면, 그 결과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 2주에 1회씩 정기적으로 배송을 진행한다.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은 소비자 맞춤형 제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피부 타입에 따른 제품 선정은 물론, 한번의 신청으로 꾸준한 제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가 ‘배송’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서비스 형태와 상품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배송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대우조선, M&A 반대파업 돌입... 92%가 “매각안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인수합병(M&A)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쟁취 행위 찬반 투표결과 파업 찬성표가 92.2%에 달하기 때문이다.

19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합병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242명이 참여해 483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며 합병으로 인한 인적 구조조정, 경남권 기자제 업체 타격, 지역경제 붕괴 등을 우려하며 동종업체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역시 인수에 반대하며 20일 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다.

한영석·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대표 이사 사장은 19일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대우조선해양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한 선택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은 없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두 사장은 “인수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이루어진 선택이다”며 “대우조선 인수는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군산지역 서민금융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한 활값 매각 우려를 일축하며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력 조정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평했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의 조선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뒤 조선통합법인 신주를 배정 받는 형식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을 위해 우선 1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쟁의 투표 결과가 ‘파업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해도 진행 중인 인수합병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文, 노원에 각별한 애정... 지역구에 민주당 포진때문?

대통령, 3년째 노원구 방문

“포용국가, 국민 개개인 역량 중요” 노원방문, 지역의원들에 반사이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취임 후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들의 기본생활 영위'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 때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노원구를 찾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대선후보였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7일 댄 노원구에서 진행된 '노원 에너지로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에너지 하우스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2018년 3월 6일 댄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

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내 연병장에서 졸업생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하자 정치권의 시선은 노원구 국회의원들에게 향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고용진(노원 갑)·김성환(노원 병)·우원식(노원 을) 의원이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을 방문하는 이유가 측근들을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노원구를 방문하고, 그 구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4@metroseoul.co.kr

해외진출기업 10곳 중 8곳 “매출 늘거나 유지”

산업부·코트라, 2018 실태조사

중 법인 '매출증가 예상' 39% 불과 171곳은 사업장 축소·철수 등 고려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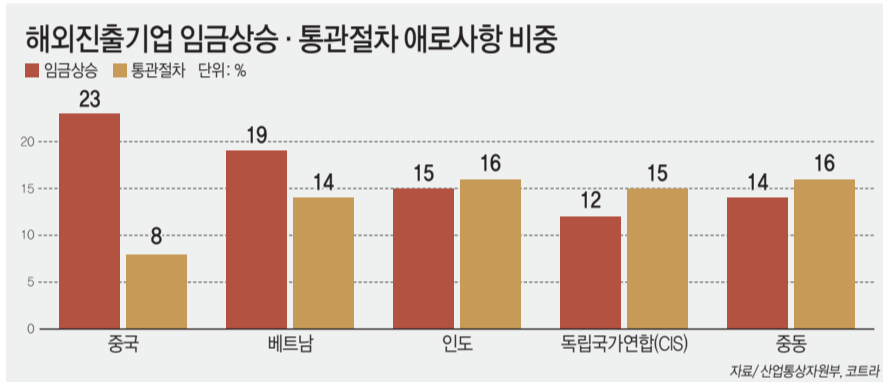
하지만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임금상승·인력채용을,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법률·조세·통관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9일 전세계 125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만2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코트라에서 실시해온 기존 현지법인의 애로사항 조사에 더해 매출실적, 고용현황 등 경영현황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매출실적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 2513곳 가운데 46%는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36%는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를 예상한 법인은 18%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법인의 50% 이상이 매출 증가를 예측한 반면, 중국 진출 법인의 매출증가 예상 응답률은 39%에 불과해 중국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장 축소·철수·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법인은 171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국내 소재



법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고용현황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3502개사)은 단순 생산직종의 경우 99%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 비중이 13%(1만2200여명)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로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법인들은 또 인력채용, 경쟁심화 등 노무·영업 분야를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은 통관절차 관련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통적인 투자대상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상승·인력채용 애로와 가격·품질경쟁 심화에 따른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기업의 성장 및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하고 있

는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CIS·인도 등은 법률·조세·생산 인프라 미비에 따른 애로가 많았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이 다수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법인 중 일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애로로 제기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현지법인 애로해소를 위해 전세계 주요국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점을 고려하는 기업은 최근 개편한 유턴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복귀를 다각도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사법부 압박하는 여당 김경수 판결문까지 분석 “드루킹 진술은 허위·과장”

로스쿨 교수·변호사, 더민주 간담회

로스쿨 교수와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근거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부가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진술 중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부분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김 지사)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키크랩 시연 뒤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음해성 허위 진술을 했다가 이를 실토했음에도, 재판부가 키크랩 참관과 개발 지시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신빙성을 문제삼을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이를 합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루킹 일

당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가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키크랩 시연 상황 등에 대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다른 객관적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무죄를 선고해야 증거재판주의와 검사 입증책임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의 키크랩 개발 지시와 승인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객관적 증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지사의 지시·승인에 관한 객관적 증거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과 동영상, 녹음파일임에도 검사가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법원이 김 지사의 업무방해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특검의 네이버 압수 로그기록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해당 기록이 실제 키크랩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키크랩을 98% 완성했다는 2016년 12월 28일 드루킹 정보보고가 같은달 4일부터 키크랩을 이용했다는 범죄사실과 모순되고, 이는 로그 기록의 발원지가 불분명하다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그는 재판부가 2017년 7월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을 온라인 정보보고 확인 근거로 삼은 점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범중 기자 joker@

文, UAE 왕세제 초청 27일 정상회담

반도체·5G·ICT 등 발전방안 협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 초

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다가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특별전략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가)'로서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에너지 등 협력에서 ▲반도체·5G(5세대 이동통신)·ICT(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방산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

대해 양국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에드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5년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참여정부 때 1번(2006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번(2010년 5월·2012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1번(2014년 2월) 각각 방한하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 대입 막차 타자’... 명지대 등 7437명 추가 모집

전국 165개 대학·수도권 600명 가톨릭·명지·성신여대 오늘까지 삼육·세종·덕성여대 23일 마감 “대학별 모집단위 파악이 최우선”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지역 대학 추가모집은 23일까지, 전국적으로는 24일까지 대학별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대학별 전형계획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미등락 총원 결과에 따라 대학별 발생한 결원만큼 추가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24일까지 진행된다. 수시모집 6회와 정시모집 3회 등 최대 9개 전형에 추가로 주어지는 기회로 대입 합격의 마지막 기회다. 대학별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9시까지, 합격자 등록은 25일까지다.

모집 규모는 전국적으로 165개 대학 총 7437명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약

〈2019학년도 수도권 대학 일반전형 추가모집 현황〉

대학명	모집단위(인원)	마감일
가톨릭대	인문학부(1) 사회과학부(2) 경영학부(1) 동아시아어문문화학부(2) 프랑스어문화학과(1) 컴퓨터정보공학부(1) 정보통신전자공학부(1) 생명환경학부(1)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2)	2월 20일
성신여대	독일어문·문화학과(1) 프랑스어문·문화학과(2) 심리학(1) 수학과(1) 정보시스템공학과(1) 글로벌의학과(1) 의류산업학과(1)	2월 20일
경기대	문예창작학과(1) 법학과(1) 행정학과(1) 경제학부(2) 지식재산학과(1) 경영학과(1) 토목공학과(1) 화학공학과(1) 산업경영공학과(3) 기계시스템공학과(2)	2월 21일
상명대	경영학부(1) 글로벌경영학과(1) 전기공학과(1) 융합전자공학과(2) 컴퓨터공학과(1) 의류학과(1)	2월 21일
가천대	유럽어문학과(1) 컴퓨터공학과(1) 전기공학과(2) 기약전공(2)	2월 22일
동덕여대	영어과(1) 일본어과(2) 사회복지학과(1) 아동학과(1) 경영학과(3) 경제학과(1) 응용화학전공(1) 화장품학전공(3) 컴퓨터과(1) 큐레이터학과(2) 피아노과(1)	2월 22일
덕성여대	철학과(2) 미술사학과(1) 국제통상학과(1) 사회복지학과(1) IT미디어공학과(1)	2월 23일
삼육대	경영학과(1)	2월 23일

/자료=각사

600명을 추가로 뽑는다. 계명대와 원광대, 강릉원주대 등 6개 대학에서는 의예·치의예 등 의학계열 11명을 모집한다. 선발 방식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반영이나, 신학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가톨릭대·명지대·성신여대(20일),

경기대·상명대(21일), 가천대·광운대·동덕여대(22일), 덕성여대·삼육대·세종대(23일) 순으로 원서접수가 마감된다. 대학별 선발방식과 일정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지원 희망 분야 모집단위를 선별해 지원 전략을 짜는게 좋다.

수시나 정시모집과 달리 지원 횟수 제한이 없지만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정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해당 대학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만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산업대나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 모집단위를 선택해 소신지원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추가모집을 하는 모집단위 파악이 우선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요구하는 특별전형보다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훨씬 많아, 우선 일반전형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하지만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거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또는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타 특별전형에 지원 가능 요건에 맞는지 파악하는게 좋다.

자신의 수능 성적 등을 참고해 정시전형 기준의 지원가능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대학에 따라 학생부 100%, 수능 성적 100% 등 학생 선발 방식이 다르므로 선택 모집단위와 대학이 어떻게 신입생을 뽑는지 정확히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

을 지원하라”며 “더불어 정시모집 때 활용 가능한 지원가능대학 기준표 등을 참조해 지원 가능 점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모집 대부분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정시모집과 비교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 입장에서 수시 6회, 정시 3회 외 1번 이상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대학 합격의 막차를 탈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추가모집 특성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나 합격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의 인지도나 학과, 전공을 고려해 소신있게 마지막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다르고 짧은 기간 동안 전형이 이뤄지는만큼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 입학 관련 게시판을 통해 세부 모집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부 대학의 경우 추가모집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기도 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부사관학군단 내년부터 정식 운영 “군이 부담해야 할 짐, 대학에 떠미는 꼴”

“근본적 정책 필요” 회의적 목소리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된 우수 부사관의 확충을 위해 부사관학군단(RNTC)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국방부가 일선의 현실을 면밀히 짚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국방부는 19일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사관학군단이 운용되는 곳은 ▲육군-대전과기대, 경북전문대, 전남과기대 ▲해군-경기과기대 ▲공군-영진전문대 ▲해병대-여주대 등 6개 대학이다. 부사관학군단은 4년제 대학에서 운용 중인 학군단(ROTC)와 마찬가지로 재학 중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해, 연간 30여명을 학교별로 선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단계로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하고, 2단계로 2020년부터 각 군 판단하에 부사관학군단 운영 대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예비역 부사관들과 부사관학과 교수들은 ‘보여주기식일 뿐 우수 부사관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부사관은 장교들과 달리 세심한 임무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부사관의 확대보다 병출신의 우수자원을 부사관으로 임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현역 부사관은 “부사관학과를 비롯한 부사관관련 제도들이 야전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각자의 전공을 통한 전문실무보다, 추후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에서 배울 양성교육 정도에 그치는 현행제도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우수부사관 인력의 확충은 부사관학군단 확대보다, 실수에 강한 우수자원을 군의 간부로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사관학과 교수는 “부사관학군단은 군이 부담해야 할 짐을 대학에 떠미는 꼴”이라면서 “별도의 학군단 시설과 민간교관의 채용 등 학군단 개설 비용 다수를 대학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사관학과 내부에서도 부사관학군단에 선발된 학생과 비선발자에 대한 선나누기와 고압적인 기수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수한 병이 부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및 자기개발 지원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

국민대, 2019 올림픽평의회 사무총장에 명예박사

스포츠 발전·국가 화합 기여

국민대학교는 지난 18일 오전 교내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총장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사무총장은 1998년 OCA 사무국장과 기술국장을 시작으로 집행위원을 거쳐 2005년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아시아지역 동계올림픽 경기종목 활성화 ▲아시아 실내경기 및 비치 경기대회 신설 등의 업적을 비롯

전 세계 올림픽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지난 15년간 아시아지역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국가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열성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 국민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사무총장은 “소중한 학위를 준 국민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학위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세인 알리 알 무살람 OCA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 18일 학위수여식에서 유지수 국민대 총장(왼쪽), 박찬량 대학원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자원경제학회 회장에 허은녕 서울대 공대 교수

서울대 공대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허은녕 교수(사진)가 한국자원경제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989년에 창립한 이후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분야의 경제학 및 정책을 전공한 학자들과 기업 및 정부의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시장, 에너지 산업, 자원 안보, 기후 변화 및 정부정책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회에는 국내외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경제학 분야 최대 국제학회인 세계에너지경제학회(AAEE)의 한국지부 역할도 담당한다.



한다.

/한용수 기자

건국대-서울시 음악영재 교육 지원 장학생 100명 선발

건국대는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음악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음악영재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을 위해 2008년에 시작된 장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교육영재는 교육비를 전액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고,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들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와 예중, 예고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 아동이다.

서류접수 기한은 3월 15일~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음악 인지검사와 실기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방산수출 기술료 부담, 절반으로 확 줄인다

침체된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무기 수출시 방산업체에 징수하던 국방과학 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방위사업청은 19일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

방사청 관계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

행정개혁학회 초대 회장에 이창원 한성대 교수

한성대학교는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사진)가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한국행정개혁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다고 19일 밝혔다.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행정개혁학회는 공공부문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다.

학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



를 맡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를 받는다.

/한용수 기자

www.pdna.co.kr

다시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피 디 엔 에 이 크림 & 세 럼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병풀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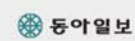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미래에셋생명, 변재상 대표이사 사장 내정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변재상 미래에셋대우 사장(사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선임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하만덕 부회장, 변재상 사장의 각자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다.

변재상 사장은 지난 2005년 미래에셋증권 채권본부장을 시작으로 경영지원, 홍보, 스마트Biz(비즈)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지난 2016년 5월 미래에셋생명 법인총괄 사장으로 발령받아 법인영업부문을 이끌었으며 2018년 1월에는 미래에셋대우로 자리를 옮겨 그룹 전반의 주요 사업과 조직관리 등 다양한 혁신 업무를 수행했다.

/김희주 기자 hj89@



하나금융투자, 자매결연부대 20사단에 발전기금 전달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8일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제20기계화보병사단(이하 '결전부대')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부대방문은 결전부대 창설기념일(2/9)을 맞이하여 하나금융투자와 20사단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나금융투자의 이진국 사장(오른쪽) 및 주요 임원들과 20사단의 황유성 사단장 및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여 상호 소개를 하고 20사단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신한카드-서울교통공사, 을지로3가 문화예술철도사업 맞손
신한카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서울 을지로3가 문화예술철도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렸다. 신한카드는 협약에 따라 을지로3가 역사 환경을 개선하고, 을지로 웰컴센터와 을지로 아트스트리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워홈-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아워홈은 경상북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지역 내 사회적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워홈과 경상북도는 ▲ 청년사회적기업가 창업 ▲ 경북사회적기업 농산물 구매 지원 및 판매 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 사회적기업 육성 ▲ 식재 마트 매장 설치 총 4개 부분에서 상호 업무를 진행한다.

바디프랜드 루이비통 디렉터 출신 디자이너 영입

바디프랜드는 루이 비통과 로에베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아트 디렉터를 거친 빈센트 뒤 사르텔(사진)을 디자이너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빈센트 뒤 사르텔은 프랑스 산업디자인고등대학(ESDI)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뒤 1987년 루이 비통에 입사해 디자이너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로에베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며 패션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빈센트 뒤 사르텔 디자이너는 향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비롯한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의 디자인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미니 안면거상술



홍종욱 원장의
성명이야기

요즘 외모에 투자하는 중장년층이 늘면서 '안면거상술'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안면거상술은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주름제거술로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일명 '회춘성형'이라고도 불린다.

안면거상술은 이마를 제외한 얼굴 부위의 처진 피부와 연부조직을 당겨줌(리프팅)으로써 눈가주름과 깊은 미간주름, 처진 눈썹, 팔자주름, 늘어진 턱 라인을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안면거상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절개 부위와 리프팅 방향인데, 리프팅 방

향이 잘못되면 눈 꼬리나 입 꼬리가 양옆으로 찢어져 보이거나 콧불이 길게 처져 보이는 칼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안면거상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수술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고도의 술기를 요하기 때문에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수술비용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주름이 심하지 않거나 긴 회복기간, 고액의 수술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미니안면거상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니안면거상술'은 절개선을 최소화해 흉터를 잘 안보이게 하는 것은 물론 회복기간도 안면거상술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수술방법은 헤어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한 후 작은 절개선을 통해 피부를 박리하여 처진 부위를 팽팽하게 당겨주면 된다. 이때 눈가 주변에 일명 '까치발주름'이라 불리는 안륜근을 제거해주면 눈가주름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단, 사람마다 주름의 깊이나 모양, 피부탄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수술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부를 박리할 때 피하지방 피관과 스마스층(피하지방과 근육사이) 피관을 박리해 함께 당겨줘야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안면거상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동시에 입회하여 수술이 진행돼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감기나 몸살, 생리기간에는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수술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삼성 서비스, 8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 인정

삼성전자 서비스가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평가에서 서비스센터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하는 인증제도로, 산업계 간부 9501명과 애널리스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96개 산업군 1위를 가려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끊임없는 혁신활동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원환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한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8년 연속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된 기념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8년 연속으로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되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다하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한킴벌리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5위'에 올라

유한킴벌리가 '2019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5위에 올랐다. 유한킴벌리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16년 연속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19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소비자, 전문가 등 1만 여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유한킴벌리는 세부 조사항목에서도 사회가치 전체 1위, 이미지가치 전체 3위에 오르는 등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평가에서도 생활용품부문 1위에 선정됐다.

1970년 유한양행과 미국 킴벌리클라크의 합작사로 설립된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잘 알려진 기업 공익캠페인을 전개해 온 동시에 기저귀, 생리대, 마용티슈 등을 생활필수품으로 정착시키며 우리 사회의 위생과 생활문화의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1984년에 시작돼 36년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공익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김승호 기자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단장 김명호 △기획조정실 고객지원담당관 조대성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양창숙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팀장 김일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이강봉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오금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최현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 우영택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장 김명희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팀 이혜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박종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 장정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과장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과장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기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 윤혜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최준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최숙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허승무 △부산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황정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박종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미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은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박인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최미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신재식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부국장) 김태균

부음

▲윤병상씨 별세, 문희수(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장)·민수(기주산업 이사)·용태(LG이노텍 부장)·의수(한진중공업 재직)씨 부친상, 김정희(주부)·전영희(주부)·유춘미(한국외대 교수)씨 시모상 = 17일 1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2650-2741.
▲박성아씨 별세, 강원구(경동도시가스 전무)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 삼천포시민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055-834-1051
▲김보규 연목회 창립회장 별세, 하천상(화의마산업 대표)·태성(세유학미술학원 원장)·경성(연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천식(파워하우스 대표)씨 모친상, 오석준(서울고법 부장판사)씨 장모상 = 17일 1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02-2227-7580
▲신영겸씨 별세, 원숙희씨 남편상, 신재우(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기자)·미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승용(조지아 공대 박사과정)씨 부친상 = 19일 새벽,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051-464-5858

“TV채널보다 잘나간다”... 홈쇼핑 ‘모바일’ 플랫폼 강화

GS홈쇼핑 채널간 시너지 극대화
CJ오쇼핑 쇼핑+엔터 결합 콘텐츠
롯데홈쇼핑 RPA 도입 등 혁신 추진
신세계TV쇼핑 전용 스튜디오 오픈

TV보다는 모바일로 보고싶은 영상을 골라보는 시대다. TV 시청이 줄어들면서 TV 채널에 의존해왔던 홈쇼핑 업계도 덩달아 주춤하는 모양새다. 대신 모바일 상품 구매가 늘어나자 업계는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19일 GS홈쇼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쇼핑 취급액은 TV 쇼핑 취급액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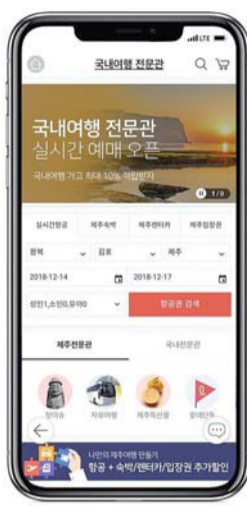
GS홈쇼핑의 최근 5년간 모바일쇼핑 취급액은 173% 급증한 반면, TV쇼핑 취급액은 54.6%에서 40.3%로 하락했다. 모바일 채널로 소비자가 쏠리자 올해 역시 모바일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GS홈쇼핑은 TV 상품과 연계한 모바일 쇼핑을 강화하고 콘텐츠와 서비스를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해 채널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CJENM 오쇼핑부문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 1조



(왼쪽부터)CJENM 오쇼핑부문 라이브 모바일 방송, GS홈쇼핑 모바일 화면, 롯데홈쇼핑 모바일 화면. /CJ ENM 오쇼핑부문·GS홈쇼핑·롯데홈쇼핑



2934억원으로 8.4% 성장한 가운데 T커머스(39.9%)와 모바일(22.3%)이 성장을 이끌었다.

회사 측은 “CJ오쇼핑과 CJ&M의 합병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CJENM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집중하면서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콘텐츠를 기획, 방영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해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출연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청자와 함께 하는 참여형 모바일 콘텐츠

를 선보이며 시청자를 유입하고 있다.

롯데홈쇼핑과 신세계TV쇼핑도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0%, 25%로 늘어났다.

모바일 취급고가 늘어나자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모바일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2년까지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진화하고 2024년에는 국내 넘버원 미디어 커머스 기업, 2025년에는 글로벌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고객 상담 시스템에 RPA(반

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를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판매 상품 기술서 검수 업무에도 RPA를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업 전반에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다.

신세계TV쇼핑은 최근 모바일 커머스 촬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했다. 약 30평의 규모로, 천장에 LED 조명을 설치해 별도의 조명 담당 인력 없이 한 명이 단독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 촬영 후 바로 편집 진행할 수 있도록 편집기를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웹스톱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이번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 오픈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기존보다 2배 가량 더욱 늘려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은 TV로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모바일로 구매를 많이 한다. 때문에 모바일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 TV 홈쇼핑의 경우 채널 전경도 심한데, 모바일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모바일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송출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바 있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케이블이나 IPTV 등 유료 방송사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년 수수료율이 인상되며 홈쇼핑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017년 기준 1조3093억원에 달한다. 2013년 971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35%가 증가한 수준이다. IPTV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수료 상승폭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해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판매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IPTV 등 방송 플랫폼에 송출수수료로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송출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TV홈쇼핑협회와 IPTV협회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정 송출수수료를 도출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친환경캠페인 앞장서는 AK플라자

비닐쇼핑백 없었더니... 온실가스 29톤 감축

(100일간)

지난해부터 ‘비닐 사용 줄이기’ 도입 1년간 1만5800그루 소나무 심는 효과



AK플라자 리턴 투 그린 장바구니 도입.

AK플라자가 비닐 60만장을 감축하며 친환경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AK플라자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식품관 비닐쇼핑백, 우산비닐’ 사용 줄이기 정책 도입 이후 100일간(2월 5일까지) 총 60만장의 비닐을 감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전 지점은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쇼핑백은 부직포 소재의 장바구니로 교체하고, 우산비닐은 우산 털이개로 대체했다.

60만장 비닐 감축은 비닐 1장당 생산에서 폐기까지 47.5그램(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민관협력기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자료 기반) 약 28.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다. 온실가스 28.5톤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154회(약 12만 km) 왕복 운행했을 때 나온 배기가스 배출량으로, 이 배기가스

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4388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비닐사용 감축 추세로 봤을 때 향후 1년간 환경개선을 예상하면 매년 비닐 216만장 및 온실가스 103톤 감축, 약 1만5800그루의 소나무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AK플라자는 지난해 9월부터 ‘리턴 투 그린, 노 리즌’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친

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AK플라자이하나 마케팅전략본부장은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효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깨끗한 유통기업이 되기 위해 보다 흥미로운 친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CJ제일제당,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K-푸드 체험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와 만났다.

CJ제일제당은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비비고’를 앞세워 K-푸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CJ그룹이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그룹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이용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CJ 프렌즈 오브 K-컬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식품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미국,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 세계에 K-만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비고만두’를 활용한 쿠킹 클래스를 통해 각국의 주요 리더들에게 한국 식문화를 소개했다.

CJ제일제당은 참석자들에게 ‘비비고만두’를 활용한 두 가지 요리를 선보였다. ‘비비고 양고자 떡만두국’을 만들어보며 한국의 전통 만두 요리와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매운 맛을 살린 떡볶이 소스를 활용한 ‘떡볶이 소스의 치즈 비비고 군만두’를 요리하며 만두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인용 기자



아디 버나드 주한 뉴질랜드 차석대사(오른쪽)가 부인과 함께 비비고 만두를 활용해 요리를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농심, 한 달간 안성탕면 매출 3.1% 기부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농심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안성탕면 판매 금액의 3.1%를 국가공공자 복지와 보훈 선양사업에 기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성탕면과 해물안성탕면 멀티팩 포장 옆면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캠페인 문구를 넣은 한정판 패키지를 제작해 3월 한 달간 안성탕면을 구매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부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성탕면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월 평균 약 90억원 수준이다. 판매금액의 3.1%를 환산했을 때 농심은 이번 캠페인으로 약 3억원 정도의 기부를 예상하고 있다.



농심이 3.1절 기념 기부행사 제품으로 안성탕면을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 안성이 3.1운동 3대 항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농심은 1982년 안성에 스프 전문공장을 세웠으며 이듬해인 1983년 안성 지명에서 제품명을 따온 안성탕면을 출시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피그인더가든&스트릿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

SPC그룹은 샐러드 브랜드 ‘피그인더가든’과 아시안 누들&라이스 전문점 ‘스트릿’ 매장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피그인더가든, 스트릿 판교점은 매장 곳곳을 도심 속 정원같은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살렸으며, 오픈키친 콘셉트로 조리하는 모습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피그인더가든은 인기메뉴인 파워보울, 연어 포케 등 보울 샐러드 6종, 크리스피 포크벨리 등 플레이트 3종, 착즙주스 2종을 판매한다. 스트릿은 판교점에서 처



피그인더가든 현대백화점 판교점. /SPC그룹

하이트진로, 엑스트라콜드 봄 한정판 패키지

하이트진로가 봄을 앞두고 하이트 엑스트라콜드 ‘스프링 에디션(Spring Edition)’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봄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이번 스프링 에디션은 캔

2종(355ml, 500ml)과 500ml 병 제품으로 출시된다. 병 제품에는 분홍색 디자인 라벨을 적용하고, 캔 제품은 캔 전체에 디자인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박인용 기자



R&D 늘리느라... 최대매출에도 웃지 못하는 제약사

유한양행, 매출액 '쑹'·영업익 '뚝'
지난해 1100억 신약개발에 투자
GC녹십자·한미약품도 상황 비슷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등이 반영됐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전년 대비 3.9% 늘어난 1조51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국내 제약업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유한양행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583억원으로 46.8% 감소했다. 올해 유한양행을 영업이익률은

〈국내 제약사 지난해 실적 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유한양행	1조5188	501	583	3.3
GC녹십자	1조3348	501	342	3.7
한미약품	1조159	835	341	8.2
종근당	9557	780	425	8.1
동아에스티	5672	392	312	6.9
JW중외제약	5371	264	104	4.9
일동제약	5040	288	130	5.7
보령제약	4604	252	216	5.4
한독	4467	220	85	4.9
동화약품	3066	112	99	3.6

단위:억원, %

3.3%에 그치며, 전년(6.1%)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00원 어치를 팔아 3원밖에 못남겼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은 R&D 투자의 증가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총 1100억 원을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 매출액 대비 7.2% 규모다.

회사측은 지난해 기술수출로 인한 계약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실적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은 지난해 11월 안센과 표적항암제 후보 물질 레이저티닙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 안센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억원 가량은 올해 분기별로 나눠져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올해 R&D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지난해 수입을 올해로 넘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올해 레이저티닙 3상 임상 비용 등으로 R&D 예산을 전년 대비 50% 가량 늘렸다”며 “이를 대비해 지난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일회성 수입을 올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이 올해 초 길리어드와 체결한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수출 계약금 약 170억원도 올해 반영된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비용이 1600~17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기술수출 수입이 R&D 비용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GC녹십자도 2018년 전년 대비 3% 가량 늘어난 1조3348억원의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44%, 39% 가량 줄어들었다. GC녹십자 영업이익률도 전년(7%) 대비 반토막 난 3.7%에 그쳤다. 지난해 GC녹십자의 연구개발 비용은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연결회사인 GC녹십자랩셀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44% 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미약품도 지난해 1조15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만에 1조원 클럽에 진입한 반면 영업이익은 835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제넨텍과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으로 지난해 매분기 약 90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입료)을 벌어들였고, 임상 진행에 따라 55억원을 더 받았지만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총 1929억원을 R&D에 투입했다. 전체 매출액의 19%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3월부터 '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가능

뇌전증 등 희귀병 환자 자가치료용

3월 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를 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가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 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LG U+,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조명·음악부터 수면 상태까지 AI가 관리

IoT AI 스피커·속면 알리미 등 설치
 VIP 병실·수면다원검사실서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스마트병원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LG U+와 협력해 이대목동병원에 '스마트 수면병실'을 설치하고 오픈 기념식을 가졌다.

18일 이대목동병원 7층 VIP 병실과 8층 수면다원검사실에서 개최된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장, 하은희 이화융합의료원장, 이향운 수면센터장 등 의료원 관계자들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 등 LG U+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대목동병원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수면병실은 LG U+에서 최근 출시해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AI 스피커와 속면등, 속면알리미 등이 설치돼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조명과 TV를 끄는 것은 물론 설정에 따라 편안한 음악과 수면에 도움을 주는 조명이 켜지기도 한다.

또 실시간으로 실내의 공기청정 상태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오른쪽 세번째),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왼쪽 다섯 번째), 이향운 수면센터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이화의료원 경영진과 LG U+ AIoT 부문 현준용 전무(왼쪽 여섯 번째), 기업신사업그룹 조원석 상무(왼쪽 네번째)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18일 열린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 기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와 습도를 모니터링해 최상의 실내 환경을 맞추는 등 병원 환경이 낯설고 예민한 환자들에게 호텔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인공지능과 IoT 시대를 맞이해 이대목동병원 VIP 병실과 수면다원검사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을 계기로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이번 스마트 수면병실

오픈에 이어 향후 LG U+와 협력해 보다 발전된 스마트 수면병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번에 이화의료원과 LG U+가 함께 하는 스마트 수면병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병원 환경에 맞게 개발할 것”이라며 “이화의료원이 추구하는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ST, 오픈 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

혁신신약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창출

동아에스티는 산업과 학계의 개방형 협력 강화를 위해 '제3회 동아ST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연구과제 공모는 학계의 창의적인 기초 연구 지원 및 동아에스티의 혁신신약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퇴행성 뇌질환(희귀질환 포함) △동아ST 제품 적응증 확장 및 제

반 연구 2가지다. 국내 대학 및 병원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1, 2차 검토 후 최종 선정된다. 최종으로 뽑힌 연구과제는 5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동아에스티가 1년간(최대 1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한다. 앞서 진행된 1, 2회 동아에스티 오픈이노베이션에서는 127개의 과제가 접수되었다. 이중 면역항암 연구 분야 6개, 자사제품 연구 분야 7개를 선정해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비타민하우스 프리미엄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 출시

비타민하우스는 프리미엄 차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비타민하우스가 출시한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는 산소함유량 22.8%, 낮은 기온, 1500m 이상의 높은 해발고도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백두산 청정고원의 비옥한 토양과 천지(天地)의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자라 영양이 풍부한 민들레 뿌리만 100% 사용한 제품이다.

'반진공 로스팅' 공법으로 맛과 향을 모두 살려낸 프리미엄 차로, 뿌리 원형을 최대한 살려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원물형 타입과 간편하게 티백으로 즐길 수 있는 민들레 뿌리차, 민들레 홍차, 도라지 더덕차 3종 티백 타입으로 출시되어 카페인 들어간 커피 대신 프리미엄 건강차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 /비타민하우스

비타민하우스의 '백두산 민들레 뿌리차'는 비타민하우스 공식 쇼핑몰인 VHmall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한화큐셀재팬, 日 주택 특화 태양광모듈 선보인다

日 최대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한화큐셀재팬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19'에 최초로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약 6만5000명이 방문한 일본 최대 스마트 그리드 전시회로 한화큐셀재팬은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주택용 및 상업용 솔루션을 전시할 계획이다.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는 세계 최대급 스마트 에너지 전시회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서 진행되는 9개 전시회 중 하나다. 한화큐셀재팬은 지난해까지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전시회 중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주로 참가하는 'PV Expo'에 참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는 사업 전략 하에 국제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에 최초로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재팬 'Smart Grid Expo 2019' 부스 전경.

/한화큐셀재팬

한화큐셀재팬은 이번 엑스포에서 자가소비 시장 공략을 위해 주택용 및 상업용 시장에 적합한 고효율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솔루션을 함께 전시한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 전시하는 큐피크 듀오(Q.PEAK DUO) 모듈은 한화큐셀의 전매특허인 퀀텀(Q. ANTUM) 기술과 하프셀 기술이 적용돼 400Wp 수준의 높은 출력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지붕이 좁은 일본 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일

반 모듈(60셀·72셀)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32셀·48셀)로 제작된 소형 주택용 모듈도 전시한다.

또 한화큐셀재팬은 분산된 소규모 발전설비들을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는 가상 발전소를 소개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모습이 담긴 가상현실 영상을 상영해 태양광 발전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보여줄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metroseoul.co.kr

동상 없는 광화문광장



기자 수첩

김현정 (정책사회부)

기자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구령대를 중심으로 양옆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학생들이 이 위인들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은 '밤 12시가 되면 세종대왕이 깨어나 책장을 넘기고, 이순신 장군이 그 목을 벤다'는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리며 킬킬거렸다.

지난달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터 잡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 존치 문제로 들쭉였다. 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새 광화문광장 설계안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세종대왕 동상은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옮겨진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순신 장군은 1968년부터 반세기 넘게 광화문을 지킨 역사적 상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두 위인 모두 현 위치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등 동상 이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다. 그런데 '동상을 모두 철거하자'는 주장이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지역에는 더 이상 레닌 기념물이 존

재하지 않는다" 블라디미르 비야트로비치 우크라이나 국가기념물 연구소장의 이 말은 동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동상은 이상화의 수단이자 이념의 상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전역에 세워진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레닌의 동상 1320개를 모두 철거하며 구 소련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미술사학자 조은정은 "철저히 발주자의 의도와 취향에 맞춘 동상이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며 "동상이 근대에 생산된 관념적 이미지에 지배받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세종로에 설치됐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중무공 동상은 호국 안보를 제1의 가치로 삼는 '군사주의의 표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 동상 건립에도 불구하고 세종의 정치철학의 핵심인 소통과 위민 정신은 가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이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위인은 마음에 새기자.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공간 광장에 동상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동상을 철거하고 광장을 비워 시민에게 돌려주자. /hjk1@metroseoul.co.kr

기아車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 고객과 양방향 소통



기아차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 포스터.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카카오와 함께 1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팀로드 스튜디오에서 토코쇼 형식의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기아차 공식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쏘울 부스터 라이브쇼'는 자동차 전문가와 기아차 쏘울 부스터 상품 담당자가 차량의 특징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듣고 대답하는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이브쇼는 쏘울 부스터의 각 트림별 구성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쏘울 부스터 리뷰' 코너, 경기도 광주시 일대를 직접 시승하면서 쏘울 부스터의 주행 성능과 각종 첨단 기능을 소개하는 '시승 라이브' 등으로 진행됐다.

기아차는 더 많은 고객들이 기아차와 소통하고 쏘울 부스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쇼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양성문 기자 ysw@

오늘의 운세 2월 20일 (음 1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대충교통을 이용할 때 계단조심. 60년생 곱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72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 가서 눈 흘길듯. 84년생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남들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 소** 49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매사에 조심. 61년생 허룽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가 낭패. 73년생 다정도 병이니 가족에게 지나친 간섭은 금물. 85년생 소나기는 잠시 피하면 금방 그친다.
- 호랑이**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며 배우는 사람. 74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86년생 결혼은 돌이키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
- 토끼** 51년생 손푼에 뚫단배 가듯이 소조로운 하루. 6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5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당달아 상쾌. 87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 원숭이** 52년생 그물을 쳐 놔오니 고기가 잡히기를 기도. 64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76년생 자식 자랑으로 입에 침이 마른다. 88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 뱀** 53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하나 의외의 복병을 주의. 65년생 총인도 사람을 보가며 따라야 한다. 77년생 마음이 아파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89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 말** 5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6년생 산토끼 잡으려 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8년생 날세 탕만 하지 말고 일단 밖으로 나가라. 9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양보하는 게 유리.
- 양** 5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79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9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 원숭이** 56년생 멀리서 친구가 근심을 전해 준다. 68년생 새로운 인맥으로 얻은 정보가 큰 이익을 가져온다. 80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생긴다. 92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
- 닭** 57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69년생 우물에서 솟는 솟아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8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는 잘 살펴야 한다. 93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 돼지** 58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0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82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날. 94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자.
- 돼지** 59년생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비옥한 땅이 된다. 71년생 집안의 대청소를 시작해보라 막힌 운이 풀려진다. 83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하지 마라. 95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6	4
7		8	9	4		5
1	4			7		
3		9	2		5	
	7				9	
	9			8		7
	4		5		1	
8	5	6				
7			9	5	4	3

	9					2
8	2			1	3	4
7			5			6
2			4			5
	7	9		8	6	
	4		2			8
	8		6			9
6	9	8			1	5
3						8

스도쿠 정답

2	9	8	6	7	5	4
7	2	1	3	4	5	6
1	4	5	6	7	8	9
3	7	9	2	8	6	5
9	7	8	5	6	4	3
4	9	6	2	1	3	8
8	5	6	7	9	2	1
6	9	8	1	3	4	5
7	2	3	4	5	6	8

문제 제공 =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육십갑자(六十甲子)

보통은 운명에 관심이 있으며 논리성을 알고자한다. 운명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사물에도 적용이 된다. 사주학(四柱學)은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팔자로 운명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사주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8자로 이루어지므로 천간과 지지 없이는 사주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사주학의 고전인 연해자평(淵海子平)에는 하늘이 황제(黃帝)에게 천간과 지지를 내려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황제가 치우(蚩尤)와 전쟁할 때 목욕재계 한 후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자 하늘에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계시가(啓示)가 내려왔고 그 후 대요씨(大撓氏)가 이 십간과 십이지를 배분하여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만들었다고 한다. 사주명리학은 사주를 구성하는 천간과 십이지에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붙이고 음양과 오행이 서로 작용하는 관계로 운명을 판단한다. 우주의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는데 양 가운데 음이 있고 음 가운데 양이 있다. 만물은 존재하려는 속성과 사라지려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것을 주역에서는 한번은 양이 되고 한번은 음이 되는 것이 도(道)라고 하였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의 속성을 지니지만 다른 한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음과 양의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삼라만상도 변하는 것이다. 양(陽)은 존재 팽창 발전 빛 열 긍정 남자 하늘을 대표한다. 음(陰)은 소멸 축소 쇠퇴 암흑 차가움 부정 여자 땅을 대표한다. 그러나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음만 있거나 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행(五行)은 음과 양이 변화하는 과정을 5가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로 구분한 것이다. 화는 양이 매우 왕성한 것이고 목은 양이 비교적 왕성한 것이다. 수는 음이 매우 왕성한 것이고 금은 음이 비교적 왕성한 것이다. 토는 금목수화 가 서로 변하는 작용을 매개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41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47호

#뉴트로 #비대면 #HMR... 3대 트렌드에 발 맞춘 프랜차이즈

인건비 절감·편의성 고려 무인화
가정 간편식 성장, 외식업 위협도
복고풍 메뉴·인테리어도 인기 ↑

올해 외식산업의 3대 트렌드는 '언택트(비대면·Untact) 서비스', '가정 간편식(HMR)의 외식업 위협', '뉴트로(Newtro)'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식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9일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트렌드 이해를 통한 외식업의 생존전략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20명과 소비자 30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로 무인 키오스크 등이 늘면서 '언택트 서비스'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대형마트를 넘어 외식 시장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홈쇼핑에서 프리미엄 HMR 등이 대거 출시되고 편의점 도시락 등이 고급화되면서 외식업의 최대 경쟁자는 HMR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디지털 감성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익숙하지 않은 아날로그 감성에 새로움을 느끼면서 '뉴트로(New와 Retro를 합친 신조어)'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달대행서비스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의 외식 경험 공유 트렌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



롯데리아 키오스크

/롯데리아에스

현재 프랜차이즈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먼저 인건비 절감과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무인화 및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다. 맥도날드는 약 420개 매장 가운데 약 250곳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KFC는 지난 2017년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특수매장을 제외한 전매장에 키오스크 설치를 마쳤다. 롯데리아도 1350개 매장 가운데 82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추후 2017년 말부터 가맹점에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현재 10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편의점업계도 무인화매장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8개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세븐일레븐은

총 6개 자판기형 편의점(익스프레스)과 4개 스마트 편의점(시그니처)을 운영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직원 전용으로 자판기형 무인점포를 운영 중이다.

가정 간편식이 외식업계를 위협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외식빈도는 2017년 21.8회에서 1회가 줄어든 20.8회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외식비용은 29만2689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만1165원 줄었다. 이에 외식기업들도 HMR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굽네치킨은 온라인몰 '굽네몰'에서 닭가슴살 교자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냉동만두는 조리 간편하고 영양이 높다는 점에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맘스터치도 간편식 시리즈로 닭곰탕과 닭개장을



닭가슴살 교자 2종

/굽네치킨



/청년다방

판매 중이다. 한촌설렁탕은 집에서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도록 간편식으로 사골곰탕과 육개장, 설렁탕 세트, 수만두 세트를 선보였다. 하남돼지집은 한돈 상품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상품을 선보였다.

뉴트로 트렌드를 적용한 곳도 있다. 즉석떡볶이 전문점인 '청년다방'이다. 감빵파이, 미숫가루 등의 복고풍 메뉴를 계절 메뉴로 판매한 바도 있고 복고풍 인테리어는 청년다방의 시그니처다. 특히 '청년니우스'라는 사내보를 발행해 점주들과

의 유대를 끈끈히 하는 것 역시 아날로그적인 낭만이 깃들여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검색량에서 청년다방은 180K로 여타 분식 브랜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활발한 SNS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썬앳푸드가 운영 중인 부티크 중식당 '모던놀랑'은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식당으로 최근 주목 받고 있다. 1930년대 상하이 거리를 모티브로 작은 소품부터 조명을 내부에 들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달 넷째 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재즈 나잇 공연도 상하이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뉴트로를 대변하는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렌드는 곧 시장의 여론"이라며 "유행을 좇아갈 필요는 없지만 조그마한 변화를 주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네파, 실속형 '프리마베라 다운재킷'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프리마베라 다운재킷'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량 다운재킷은 추운 날씨에는 외부 속 이너로, 간절기에는 가벼운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실내에서는 체온을 유지해주는 아이템으로 꼽힌다.

네파가 새롭게 출시한 프리마베라 다운재킷은 심플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여기에 경량 소재와 헝가리 구스다운이 사용돼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여성 라인은 넉넉한 기장감에 후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후드와 라운드넥 두 가지 용도로 연출할 수 있으며, 허리 중앙에 스트링 기능이 적용돼 슬림한 실루엣을 선사한다. 색상은 블랙, 화이트, 인디고 핑크 등 3가지다.

남성 라인은 목이 살짝 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블루, 로얄 블루, 다크 레드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네파 '프리마베라 다운재킷'.

/네파

네파 상품본부 이희주 전무는 "올해 프리마베라는 스타일 측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간절기 스타일링 아이템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옴50안경, 반포점 오픈 기념 할인행사

옴50안경체인반포점이오픈행사를 실시한다.

19일 옴50안경에 따르면 반포점 오픈을 기념해 구매 고객들에게 최대 67%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용 고급 안경테 모야이를 9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콘택트렌즈 최저가 판매도 진행된다. 아큐브 모이스트 대용량(90P)은 5만

2000원, 오아시스 2주용(6P)은 2만1000원, 모이스트난시(30P)는 2만8000원, 미루 한달용 근사용(6P)은 2만5000원에 판매된다.

누진 다초점렌즈는 최대 67%까지 할인된다. 아지오플러스 1.50은 9만9000원에, 아지오프로 1.50은 12만9000원에 판매된다. '아지오' 시리즈누진다초점렌즈는 사용자 맞춤형 렌즈다.

/김민서 기자

신라면세점, 봄여행 떠나는 '30대' 잡는다

겨울방학 기간 끝나 대학생 매출 ↓
감성 자극 '추억의 뽀기' 이벤트도

신라면세점이 겨울방학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30대 내국인 고객 대상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대학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 고객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30대 고객의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9%였던 30대 내국인 고객 매출 비중은 지난해 4월에 48%로 증가했다. 반면에 20대 내국인 고객의 매출 비중은 동기간 28%에서 20%로 감소했다.

봄은 연간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많은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업계에서는 통상 해외여행 비수기로 분류한다. 이 때를 겨

냥해 여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30대 직장인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는 30대 이상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뽀기'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시즌별로 주요 타깃 고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적별, 연령별, 성별 등 특징에 따라 전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의 플로우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4관왕을 석권했다.

/애경산업

IF '코스메틱 패키징 부문' 등 위너

애경산업의 브랜드 플로우(FFLOW)는 국내외 유명 디자인어워드 4관왕을 석권했다고 19일 밝혔다.

플로우는 세계적 디자인상인 '독일 IF 디자인어워드 2019'의 코스메틱 패키징 부문과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18'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위너에 올랐다. '펜

타어워즈 2018' 패키징 부문에서는 실버 어워드, '굿 디자인 2018'에서는 골드 어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플로우는 제품 용기에는 사선 각도가 적용됐다. 플로우 측은 피부 솔루션을 위한 정제된 성분을 담았다는 의미에서 갈대기와 삼각플라스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GS샵, 시니어봉사단 '액티브러브' 발대식

GS샵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GS샵 시니어봉사단 '액티브러브'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시니어봉사단 액티브러브는 세대 갈등과 인식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들의 인성 증진을 위해 출범했다. GS샵과 기아대책은 40대 후반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성우 배한성씨를 비롯해 전 전남 영광군 부군수, 전문상담사 등 다양한 경력의 봉사단원 30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액티브러브 단원들은 올해 말까지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과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등을 찾아 공동체 의식, 소통, 존중 등을 주제로 하는 인성나눔 교육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안경은 으뜸50안경에서 하자!



Optical Chain Store 으뜸50안경

새해 이벤트 2탄!

새학기 맞이 으뜸50안경
고객 감사 행사

학생용 고급 안경테
모아이(MOEYE) **9900원**

모아이(MOEYE)

2019 으뜸50안경 새해
EVENT 3탄

이벤트 기간: 2월 1일~2월 28일
결과 발표: 3월 11일 월요일

으뜸 50안경과 키에그가 총 505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 1 으뜸 50 안경에서 키에그 안경렌즈를 맞춥니다~
- 2 으뜸50안경 top50glasses 공식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
- 3 키에그 안경렌즈 봉투를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으뜸 50 안경 #키에그 #으뜸 50 안경♡점 **해시태그 참여완료!!**

이벤트 상품



강남1호점	02-3477-2006	미아사거리점	02-988-0508	원주점	033-747-5059
강남2호점	02-2052-2022	수원영통점	031-203-2002	천안점	041-564-5001
강남3호점	02-523-7712	수원아주대점	031-211-1825	대전둔산점	042-484-4188
왕십리점	02-2295-5051	수원역점	031-257-1825	대전도안가수원점	042-541-4188
영등포점	02-2634-5050	안양범계점	031-381-1215	대전관평점	042-936-7787
까치산점	02-2693-2688	산본점	031-392-0567	부산남포점	051-256-8816
망원점	02-325-0356	의왕점	031-454-6552	부산사상점	051-313-0407
홍대점	02-332-1175	안산중양점	031-504-9963	부산덕천점	051-337-2535
연신내점	02-356-9127	이천점	031-637-1103	부산동래점	051-552-4819
발산점	02-3665-2583	평택점	031-657-5006	부산경성대점	051-866-1400
건대역점	02-466-5635	분당점	031-705-6505	울산남구점	052-257-0068
이수역점	02-522-0711	동탄점	031-8003-9002	대구중구점	053-428-8001
반포점	02-535-7750	의정부점	031-840-0085	구미점	054-451-0375
천호동점	02-6052-1563	일산동구청점	031-932-8455	포항점	054-615-5545
남영역점	02-707-0780	일산화정점	031-972-1882	광주충장로점	062-229-0007
대학로점	02-747-5707	역곡역점	032-348-2020	광주상무점	062-376-0111
명동1호점	02-752-3931	인천구월점	032-425-6505	광주전남대점	062-382-3939
신림1호점	02-859-3331	인천부평역점	032-511-0110	광주수완지구점	062-955-5083
신림2호점	02-888-8021	춘천점	033-263-0049	전주객사점	063-288-3734
노원역점	02-934-6789	강릉옥천오거리점	033-655-2828	전북익산점	063-857-3734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61.2억 투입... 기업 발굴·육성

‘2019년 창업지원사업 추진계획’
초기 창업기업·재창업기업 120개사
맞춤형 보육 시스템으로 집중 지원

부산시는 올해 창업지원사업 24개에 사업비 61억 2000만원을 투입해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성장유망 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19일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1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200개사를 선발해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창업을 성공시키는 소위 정량적 성과위주의 지원사업을 해왔다”며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초기 기술창업기업 외에 생존율과 경영성과가 높은 숙련창업 기업 및 재창업기업 등을 포함해 모두 120개사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으로써 부산형 대표 스타트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부경대 용당캠퍼스 내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카페 3개를 창업지원사업의 거점으로 창업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지



부산시는 올해 창업지원사업에 61억여 원을 투입해 기술창업 지원사업과 성장유망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

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에 구축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창업 Plus Center」는 청년창업 특화시설로 중점 지원한다. 또 부경대 용당캠퍼스 이전 계획에 맞춰 용당캠퍼스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중장년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내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사내벤처 창업 2년 이내 기업 포함)에 대한 전문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부산지역 창업기업

에 대한 전수 조사 및 DB를 구축해 성장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 ▲창업기업의 신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테스트 베드와 창업기업 제품의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이다.

그 외에도 ▲창업기업 제품 판매장(광복동 위치, 크레이티브샵) 확대, 클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채널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인턴 지원사업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미래혁신포럼을 통해 창업기업과 지역 벤처 및 중견기업들과의 상호 협업 및 엔젤투자를 촉진하고, ▲부산은행과 함께 창업투자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부산재창업성공캠프(R-CAMP)를 중심으로 부산지역 재창업 기업에 대한 인력과 마케팅, 투자유치를 확대

하고, 재창업 경진대회, 재창업 축제(REFE부산) 등을 통해 재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인 창업·벤처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자 매칭펀드 50억원을 포함해 청년창업펀드, 임팩트 펀드 등 창업투자펀드 21개 3,404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유치와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의 극복을 위해 펀드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일자리창업과장은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창업지원사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단계화, 고도화하여 창업기업이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선7기 창업지원사업이 부산의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최인락 기자 remark@metroseoul.co.kr

남원시 120봉사대, 60여개 마을 찾는다

찾아가는현장민원 봉사단
생활밀착형·체험현장 봉사 실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남원시 120봉사대가 올해 60여개 마을을 찾아가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19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매면 화정마을을 방문한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단은 각 가정을 방문해 복지상담,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난기계수리, 이·미용 봉사를 실시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복지상담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각각지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별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해 풍년농사를 예약했다.

찾아가는현장민원 봉사단은 7개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매주 화·목요일 1개 마을씩 60개 마을을 방문해 생활밀착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시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체험현장봉사도 실시한다. 체험현장봉사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엘지전자광주서비스센터, 전기안전공사,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빨래봉사, 전자제품수리, 전기안전점검, 한방봉사를 실시



호평받는 남원시 120봉사대 대장정 돌입

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의견수렴 등 소통간담회도 갖는다.

생활현장투어도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생활현장투어는 봉사대원이 시 전역을 순찰하면서 도로, 교통, 환경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120봉사대가 직접 처리한다. 예산이나 장비 등의 수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이첩해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도 함께 한다.

취약계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세대 120세대를 선정, 대상 세대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불편사항 정비는 물론 안부확인과 말동무도 함께해 독거노인의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전북 남원=봉채영 기자 bcy2020@

‘탐구22호’ 본격 활동... 수산자원조사 확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부터 3척 조사선 동시 조사
신뢰도·정밀도 높은 진단 기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수산자원조사를 확대·강화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일 “지나해 11월 새로 건조한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2호(1458톤)’가 본격 투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동·서·남해, 3개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과원이 보유하고 있는 800톤급 이상인 수산과학조사선은 탐구 20호(885톤), 탐구 21호(999톤), 탐구 22호(1458톤) 등 3척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수과원은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산란정보 및 자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국 경계해역(한·중·일중점조치수역, 한·일중간수역)을 포함한 해역별 난자치어 조사 ▲특정해역(동해북부해역, 이어도 주변해역, 서해5도)의 자원조사 ▲중점 대상어종(살오징어, 명태 등)의 유생조사 ▲근해 자원분포도 조사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산자원 정보의 신뢰도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연구원들이 탐구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네트(MOCNESS)를 정비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200여개 조사정점을 400여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자원변동을 예측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시기별, 서식해역별 집중 조사를 수행한다.

이번 2월 조사(14일 출항)에서는 탐구 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네트(MOCNESS)를 이용해 명태의 산란시기(12월~2월)에는 8개의 특정 수심대로 구분해 시험조사하고, 해양환경과 수심대별 분포특성 간의 관계를 연구할 계획이다.

탐구22호에 탑재한 다중개폐식 ‘네트’는 특정 수심에서 분포하는 어란과 자치어 채집망을 말한다.

또한 살오징어의 자원량 변동 조사를 위해 제주 남부·동부 해역의 54개 정점을 중심으로 겨울 산란군의 유생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그동안 수산자원조사 인프라 구축과 자원조사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부터 3척의 조사선이 동시에 자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우리바다 상태를 더욱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락 기자 remark@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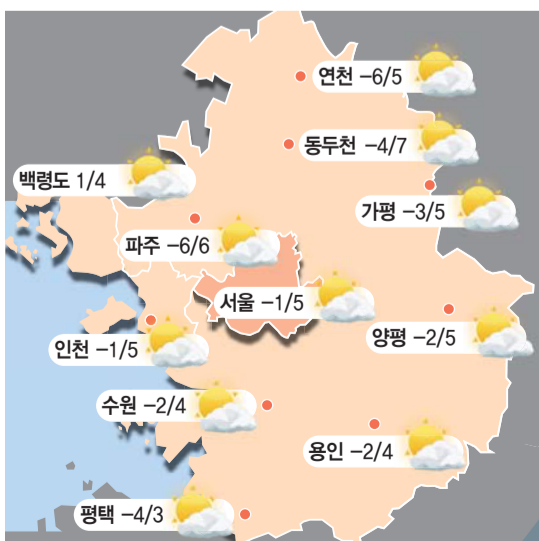
해돋이 / 07:16 | 해질 / 18:16

2월
20일(수)
음력 : 1월 16일

수도권 날씨

-1 ~ 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구입 지원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조금 지원

정읍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 4억 82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300여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 폐차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신청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면서 그 외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대상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 당 400만원씩 총 5대 차량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북 정읍=봉채영 기자 bcy2020@

김제시

하키 전지 훈련지로 급부상

김제시가 하키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제시는 오는 23일까지 부산 동이대 및 경민대, 세한대, 전주대, 우석대, 청주시청, 대구 수성구청, 광산구청 등 태권도 13개팀 255명과 하키 꿈나무 선수 1개팀, 51명이 김제 국민체육센터에서 본격적인 합숙훈련에 돌입해서 대표 선수 모두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동계 훈련팀들이 김제를 찾는 것은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기온과 훈련팀에 무료로 제공되는 체육시설 및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에 식당·숙식 안내와 편의제공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본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

비정규직 등 2천명에 휴가비 지원 ‘서울형 여행바우처’

2019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
올 관광객 3250만명 유치 목표
개인 15만원 내면 25만원 지급



19일 오전 서울시장에서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이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9일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광 정책은 ▲생활관광 향유 기반 조성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정책 마련 ▲서울만의 특별한 관광콘텐츠 확충 ▲서울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표한 관광정책은 ‘2019~

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는 올해 4개 중점분야, 37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관광객 3250만명을 유치, 총 31조275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시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대상자가 15만원을 내면 시가 25만원을 추가해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계약서와 3개월간 급여기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서 숙소·렌터카 예약,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광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2000명에게 맞춤형 여행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시는 3월 서울관광재단 내에 관광산업 기초연구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서울관광 R&D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확충한다. 정부기관, 관광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평화관광자문단’을 운영해 서울 지역의 평화관광자원을 찾고, DMZ·JSA 투어 같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이 공식 인증한 ‘서울순

례길’을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기 위해 팸투어 등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아울러 시는 세계 최고 MICE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MICE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4월 발표할 예정이다. 동남아는 K-POP, 일본은 미식, 인도·중동은 의료관광 등 타깃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시는 올해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발판 삼아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서울의 매력을 증진시키겠다”며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 동력인 세부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외국인 관광객 1350만명, 내국인 관광객 1900만명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1025억 투입... ‘걷기편한’ 서울 만든다

휠체어 등 다닐 수 있게 보도 정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직접참여

서울시가 올해 총 1025억원을 투자해 걷기 편한 도시를 완성한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울퉁불퉁한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해 직접 시설을 점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걷는 도시 서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은 ▲보도환경 정비 ▲교통약자 눈높이 정책 강화 ▲도심 도로공간 재편 및 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 ▲보행문화축제 확대 등 4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546억원을 투입한다. 유모차나 휠체어도 장애 없이 이동하도록 평탄성 확보를 위한 정비하고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실시한다.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행환경 정책도 강화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보도분야 기준적합 설치율 80% 달성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한다.

퇴계로 2.6km 도로 공간 재편은 연내 마무리한다. 6~8차로를 4~6차로로 줄여 보행공간을 늘리고 양방향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세운상가 앞과 퇴계로 4~5가 중간지점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이면도로 진출입부 보도 간 모든 횡단보도는 높이를 올려 보도와의 단차를 없앤다.

보행 평탄성을 확보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서울 대표 보행축제로 자리 잡은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조성해 걷는 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서울 도시는 다양한 정책시도를 통해 기본적인 보행여건이 갖춰진 상태지만, 서울시 전체의 보행환경을 보면 아직도 개선과제가 많다”며 “진정한 보행도시에는 작은 단차, 경사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정책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도서관에 걸린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현수막
19일 오전 서울 도서관에 북한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넓은 공장 800곳 ‘스마트공장’ 탈바꿈

경기도, 756억 투입 비용 50% 지원

경기도가 올해 800여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오래된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 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8.2%에 이르는 규모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8%인 1,971개사(전국 1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은 30.0%가 늘고, 불량률은 43.5%, 원가 15.9%, 산업재해 22%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3. 관계부처 합동. 발체). 기업당 고용도 평균 2.2명 증가하는 등 청년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와 솔루션을 최초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규구축과 기존 설비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도화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9@



눈길을 걷다
많은 눈이 내린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을 찾은 시민이 눈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3년내 주차공간 6642면 확보

지원금 최대 100%로 확대
올 17개소 765면 완공 계획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6600여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주차장 건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 비율도 최고 100%까지 올려 2022년까지 총 66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특히 비강남권역의 주택가 주차여건 개선에 힘쓴다. 2022년까지 목표치의 63%(4200면)를 비강남권에 조성한다. 현재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강남3구 141%, 비강남권 130%이다. 비강남권은 강남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10% 가량 낮은 실정이다.

시는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 보조 심사 대상을 사업비 60억원 이상 주차장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입체식 주차장뿐 아니라 평면식 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소규모주차장(10면 내외)은 투자심사를 면제해준다.

아울러 시는 기존 최대 70%까지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비용을 최대 100%로 늘렸다. 최초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0~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추가로 10~30%

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내 총 62개소 2922개 주차면 건설에 시비를 지원, 17개소 765면을 완공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향상되면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은 물론, 불법 주차가 야기하는 긴급차량 진입곤란문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등 안전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가며 지역 간 균형 있는 주차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강화

지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 4만4000동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들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24만여 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내에는 이같은 건축물이 4만4040동으로 조사됐다. 이 중 3만3651동이 6층 이하 건물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체 이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 한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기둥이 휘고 부서지면서 전국의 같은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건의, 지난해 12월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 협력 대상 건물을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산업] 5G, 3월 일반에 상용서비스 갈길 바쁜 이통사 05



Life

[라이프] 뉴트로·비대면·HMR 3대 트렌드에 발 맞춘 프랜차이즈 L4



서울 야경 한눈에... 성곽길 따라 달빛 산책 어때요



낙산공원의 야경 모습.

되살아나는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18세기 말 제작된 한양 지도 '도성도'에는 백악산(북악산), 인왕산, 목격산(남산), 타락산(낙산)의 내사산을 중심으로 한 한양의 빼어난 자연이 담겼다.

서울을 구성하는 내사산 중 하나인 낙산은 서울 도성의 동쪽 산봉우리로 풍수지리로 볼 때 좌청룡에 해당한다.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좌청룡, 낙산에는 능선을 따라 도성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상당부분 파괴·손실됐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아파트와 주택에 잠식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역사 유물로서 기능을 잃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낙산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녹지축과 연결해 낙산의 모습과 역사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14년만에 완성된 낙산공원

낙산은 산의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고 해서 낙타산으로도 불린다. 예전에는 산 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서울시의 녹지 확충 계획에 의해 낙산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낙산공원조성사업은 1997년부터 14년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걷기 편한 서울성곽길을 만들기 위해 종로지역과 성북지역을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 공원과 서울성곽길을 연결했다.

1단계는 종로지역에서 진행됐다. 시는 1997~2002년 14만8088㎡ 면적



지난 17일 낙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성곽길을 걷고 있다.

14년동안 공원조성사업 진행 건물 철거하고 편의시설 설치 낙산 꼭대기 성곽길 야경 명소

에 7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동승시민아파트 30동, 건물 176동을 철거했고 낙산 복원, 비우당과 전시관 건립,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2단계 성북지역은 2006~2009년 4만9336㎡ 면적에 2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낙산 동쪽 사면의 노후화된 건물 164동을 없앴다.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12종 1307그루와 사철나무와 같은 키 작은 나무 16종 5만240그루를 심어 녹지를 복원했다. 1km에 달하는 성곽탐방로와 휴게시설, 성곽조명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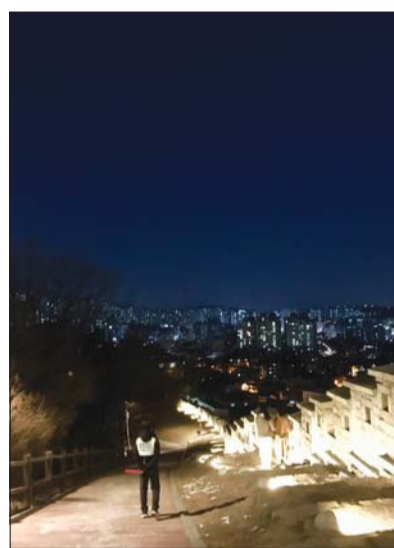
시는 2010년 동대문~낙산공원~동소문로(혜화문)을 잇는 2.16km 서울성곽길을 모두 연결, 1997년부터 14

년 동안 진행해온 낙산공원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17일 좌청룡 낙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종로구 동승동에 위치한 낙산공원을 찾았다. 해화역 2번출구를 나와 마로니에 공원을 가로질러 약 5분을 걸었다. 거대한 중앙광장과 함께 낙산전시관이 나타났다. 전시관 동쪽,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는 계단이 설치됐다. 북쪽에는 제1~3전망광장이 들어섰다.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보이는 전망광장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날 낙산공원을 찾은 박광현(27) 씨는 "친구와 함께 운동할 겸 해서 런지(하체 근력 강화 운동) 동작을 하며 올라왔다"며 "놀이광장 옆에 운동기구도 설치돼 있어 가볍게 몸 풀기 좋다"며 활짝 웃었다.

동승동에서 사는 이주영(25) 씨는 "본가가 서울인데 낙산공원이 너무 좋아 근처에서 자취한다"며 "월세로 나가는 40만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



관리요원이 낙산공원을 순찰하고 있다.

◆떠오르는 야경 명소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낙산 꼭대기에 있는 성곽길이었다. 성곽에 오른 사람들은 성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바빴다.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방모(34) 씨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중재 씨가 낙산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보고 좋은 곳인거 같아 한번 와 봤다"면서 "TV에서 봤던 것 보다 훨씬 아름답고, 저 멀리 남산타워까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가족과 함께 낙산공원을 찾은 김태형(37) 씨는 "회사 동료와 낙산공원 야경이 정말 예뻐다며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며 "여기서 해 지는 것만 바라봐도 배가 부르다"며 미소지었다.

김 씨는 "올라오면서 봤는데 성벽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구멍에 머리를 넣는 사람도 있다"며 "애들이 따라하려고 해서 말리느라 진땀 뻘었다. 공원을 지키는 관리요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한양도성을 가꾸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시민순성관을 선정·운영해왔다. 시민순성관은 조선시대 도성을 순찰하는 순성관에서 따온 이름이다. 도성 보존과 정화활동을 하는 지킴이 순성관은 월 1회 탐방로 주변시설을 점검하고 도성 보존 캠페인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시민순성관은 한양도성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유지하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